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2호 HYUNBULNEWS.COM 2025년 3월 12일(음력 2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3월 6일 열린 조계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개관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내외빈들이 보존센터에 있는 불교문화유산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계종 홍보팀

불교문화유산 보존 전진기지 문 열다

조계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개관식
2013년 계획 수립 후 2024년 준공 완료
사업비 195억원 투입…국가유산청 협조
국내 최고 수장고 · 보존처리실 들어서
진우 스님 "소중한 정신 미래 잇는 출발"

양평=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전경.

불교문화유산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의 대다수 문화유산이 불교문화유산인만큼, 이에 맞는 전문 연구시설로서 분야별 과학적 보존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6일 양평 용문산 아래 위치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이하 보존센터)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

조계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존센터는 2013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했다. 2022년 착공해 2023년 상량식을 거쳐 2024년 12월 준공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된 보존센터 건립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비롯해 경기도청과 양평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더욱 나은 환경에서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평 부지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용문사의 기부로 마련돼 의미를 더한다.

용문산 아래인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22에 위치한 보존센터는 건축면적 1889㎡(571평), 연면적 6769㎡(2048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됐다.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수장고를 비롯해 재질별 보존처리실, 전시실, 연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내 최초의 대형불화를 조사 및 보존처리할 수 있는 대형불화처리실을 갖췄다.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보존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불교문화유사의 가치를 밝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전센터 건립은 의미가 크다. 불교문화유산뿐 아니라 국외 소재 성보문화유산 환수 협조 및 보존 복원 참여를 통한 공익성 증대 측면에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추후 보존처리를 완료한 불교문화유산 전시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개관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쁜 마음으로 보존센터의 의미를 전하고 맑은 물과 자연의 보고인 양평에서 출발하는 보존센터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진우 스님은 "유산을 지키고 후대에 온전히 전하는 일은 종단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각 사찰에는 오랜 세월 그 유산을 보호하고 이어왔고 보존센터는 그 성보들을 더욱 가치 있게 유지하고 미래로 전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호암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보존센터가 수행과 지혜를 나누는 터전이 되길 서원했다. 호암 스님은 "먼 시간을 넘어 전해진 불교들의 법과 신심이 이 공간에서 소중하게 연구되고 보호돼 불교문화의 맥을 잇고 후대에 전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길" 바랬다.

이날 진우 스님은 불국사 문화국장 효신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효신 스님은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종단 목적 불사인 보존센터의 건립에 크게 이바지 한 점을 인정받았다.

개관식 후 진우 스님은 보존센터를 라운딩하며 문화유산 보존 및 보수 시설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관 유물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보존센터는 2021~2024년 진행한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 조사〉 사업을 통해 파악된 손상이 심한 고승 진영에 대한 보존처리를 시작한다. 또 불상 복장 유물에 대한 인문학, 원형 디지털, 과학 조사 등을 통해 원형 기록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및 보존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 문화유산 보존 처리 교육과 시민 강좌도 준비 중에 있다.

조계총림 송광사, 제8대 방장 후보 현묵 스님 선출

3월 6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90안거 성만, 수행 매진한 禪僧
"목우가풍 계승…선풍 빛낼 것"



조계총림 송광사가 새 방장 후보로 현묵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3월 6일 경내 자재원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방장 후보 선출을 논의한 끝에, 현묵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315명(비구 262명, 비구니 53명) 중 217명이 참석해 성원이 충족됐다. 앞서 송광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임회를 통해 현묵 스님을 방장 후보로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송광사 제8대 방장 후보로 추대된 현묵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 송광사 조계총림 산중총회를 통해 원로 대덕스님들과 여러 대종사 스님들, 그리고 대중스님들의 뜻이 모아진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송광사의 목우가풍을 이어가며 대중스님들을 잘 모시고, 옛 선사 스님들의 가풍을 계승해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대중스님들께서 수행과 정진의 가풍을 이어간다면, 조계총림 송광사는 더욱 불법이 융성하고 선풍이 널리 선양될 것"이라며, "앞서 소임을 맡았던 현봉 방장 스님께서 많은 깨우침과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다 가셨다. 그 모습을 본받아 송광사의 선풍을 더욱 빛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8일 송광사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개최를 앞두고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다. 이후 현묵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방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며, 송광사는 오는 4월 24일 보조국사 종재에서 승좌법회를 열어 전통을 잇는다.

현묵 스님은 1971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2년 사미계를, 197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5년 송광사 선원에서 수행을 시작한 뒤 전국 제방선원에서 총 90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에 매진했다.

특히 1983년부터 하동 칠불사 선원에서 10년간 수행하며 산문을 나서지 않고 정진했다. 이 기간동안 7년 묵언 정진을 실천했으며, 대중과 함께 3년 결사 정진을 마쳤다.

또한,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송광사 유나(선원을 총괄하는 직책)를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는 송광사 수좌와 수련원장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순천 송광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지도자들 "헌재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종지협, 3월 5일 입장문 발표

한국의 7대 종교지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이하 종지협)는 3월 5일 '대한민국,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 제하의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화합과 상생을 당부했다.

종지협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현직 대통령의 구속과 내란죄 기소, 헌법재판소의 심리까지 이어지며 우리의 국가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 놓였"음을 상기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종지협은 "헌법이 존재하는 한, 그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란 절차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 모두의 길은 막힐 수 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7대 종교지도자들은 다툼을 멈추고,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종지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의 진영논리에 갇힌 극단적 주장을 멈추고,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여야가 서로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손을 맞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서로를 불신하는 데 있지 않다. 국민 모두가 함께 걸을 길을 모색하며,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에 몰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종교계는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국민이 다시 하나 되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2025학년도 금정총림 범어사 승가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화엄 종주 의상조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한 「화엄경」사상과 경허선사께서 오래 주석 하시면서 비롯된 선풍을 계승한 범어사 승가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_ 사미, 비구
■ 모집기간_ ~ 2025년 3월 31일까지 (※사전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_ 1) 입방지원서 및 신상명세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서약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3) 건강진단서 (종합병원 *2025년 사미계 수지자는 생략 가능)
4) 사미증 사본
5) 사진(만의복장, 3×4규격) -3장
■ 준 비 물_ 만의(사미), 장삼
■ 전 형_ 서류심사, 면접(추후 개별 연락)



■ 특 전_
● 강의교재 구입비 및 신입생 최신형 아이패드 지원
● 졸업여행 인도 부처님 성지순례 지원(약 10일) 또는 해외연수비용 지원
● 신입생 입학금 면제, 신입생 및 편입생 매월 최고 수준의 수행비 지원
● 화엄경 특강(화엄경 연구원 대강백 무비큰스님) 및 선지식분들의 특별법문 참여가능
● 학습시간 및 여가시간 보장
● 전학년 경전 강의 및 영어 수업, 염불 수업 진행
● 동국대 병원 MOU체결, 병원비 약품비 지원
● 강원 스타렉스 차량 지원
● 안거 반철 부산지역 사찰순례 지원
● 생활에 필요한 기본 용품 지원
● 부산 도심의 접근성 용이(관공서 및 병원 등)
-셔틀버스 운행 -시내버스 이용 -강원 차량 이용

■ 원서교부 및 접수_ 범어사승가대학 051)508-3127, 종무소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승가대학
방장 여산정여 대종사 · 주지 정오 · 학장 도산

국회에 선명상 전한 진우 스님…“마음 살펴라”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서 실참 · 법문
종단협 지도자 · 정각회원 등 참석
“내가 평안해야 세상도 평안” 강조
여야대표 “부처님 법 따른 정치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회 정각회가 3월 5일 봉행한 신춘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실참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손은 편안하게 배꼽 아래 모으거나 살짝 허벅지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주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술 사이로 내쉼을 반복합니다. 이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의 지도에 따라 대중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골랐다. 이내 장내는 고요한 침묵이 가득 찼다. 이날 진우 스님에게 선명상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국회정각회의 불자 국회의원들. 한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을 여야를 떠나 선명상을 실참하며 진우 스님에게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국회 정각회(회장 이헌승)는 3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신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증명법사로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선명상 실참지도 후 이어진 법문을 통해 어려운 시국일수록 스스로 마음을 잘 유지시키고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모든 것이 내가 평안한 상태가 돼야 세상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야지혜가 나온다”며 “현재 우리는 안 좋은 공업을 받고 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평안해질 때 깨끗하고 청정한 정토를 이룰 수 있다. 공업으로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자신이 우선 깨끗하고 평안해야 한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안의비설신의를 통해 감정이 요동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육도윤회한다. 우리는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마음을 잔잔하게 만드는, 스스로를 평안하게 하는 내공을 길러야 한다”면서 “그 내공을 기르는 방법은 선, 또 다른 말로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정각회원들에게 선명상 정진을 재차 권했다. 스님은 “내 눈높이로 세상을 재단하니 시시비비에 휘둘리게 돼 있다. 옳고 그름을 가리 돼 집착은 말고 방하착(放下著)하시라. 그럼 새로운 지혜가 열린다”면서 “매일 1~2분 선명상으로 시작해 5분, 10분으로 늘려가다 보면 자신의 감정은 건드리지 않으며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해 불자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1983년 설립된 국회 정각회는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며, 한국불교 중흥과 국민대통합의 길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각회는 중도와 화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온 국민을 평안케 하는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정치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

〈유마경〉의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는다’는 경구를 인용한 우원식 의장은 “지금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다. 국민이 병을 앓으면 정치도 병을 앓고, 국민의 병이 나으면 정치도 병이 낫는다는 마음으로, 여야가 화합하여 민생부터 챙기라는 가르침 아니겠냐”면서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들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영배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화합과 상생을 실천해 온 정각회처럼, 더불어민주당도 모두를 위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강선영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들께 안식을 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헌승 정각회 회장과 주호영 명예회장, 김영배 수석부회장, 김병주 부회장, 이개호 고문, 이수진 수석간사 등 정각회원 20여 명이 자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 추진

종헌종법특위, 종헌개정안 성안
“94년 협소”…1984년 확대 제안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멸빈자 사면을 촉구하는 유시를 발표하며 총무원 차원의 종헌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가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헌종법특위)는 3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이 입법 예고한 종헌 개정안을 검토하고 종회 차원에서 개정 취지 내용을 일부 수정해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총무원은 2월 27일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헌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날 종헌종법특위는 “종헌개정안은 원로의장 스님의 유시에 부합하고 종단 화합을 위한 조치”라면서도 “다만 1994년 전후 멸빈자에 한정하기 보다는 범위를 넓혀 1984년 이후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종헌종법특위는 총무원이 입법 예고 한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검토해 총무원 측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심호계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는 ‘호계원법 개정안’도 성안됐다. 현행 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은 초심호계원장을 포함해 7인, 재심호계원은 재심호계원장을 포함 9인이다.

성광 스님은 “현행 초심호계위원회 7인 체제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판결이 이뤄지기 부족하고 현행 7인 체제에서는 성원인 4명만 참여해도 징계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초심호계원의 합리적 판결과 종헌종법에 밝은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숫자를 재심호계원과 동등하게 9인으로 두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호계원법 개정안은 만장일치 성안됐다.

임은호 기자

강화 화개사 주지 원준 스님 임명

3월 5일, 임명장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원준 스님에게 화개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포교에 매진해 줘 고맙다”고 격려하며 “교동도 주만뿐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사찰이 될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원준 스님은 대웅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현재 화개사 주지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단 인재 양성 교육기관 입학식 잇달아

5일 중앙승가강원 입학식
6일엔 전법사교육원 입학
동방불교대학 입학식도



태고종은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중앙승가강원 입학식’ 을 봉행했다. 사진은 입학식 이후 기념촬영.

태고종단의 전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들의 입학식이 잇달아 개최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중앙승가강원 입학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올바른 길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태고종의 주인공”이라며 “수행자는 올바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배운 것을 실천할 줄 아는 게 바른 수행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정진하면 종단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다”며 “스스로를 주인되는 삶을 사는 수행자가 돼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상진 스님은 사교과 강주에 도종 스님, 대교과 강주에 화엄 스님을 임명하고 학인들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를 부탁했다.

앞서 태고종 불교포교사 산실인 동방불교대학(학장 법담 스님)은 전승관 대회실에서 제43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1982년 문을 연 동방불교대학은 태고종립 교육기관으로 종단 교역자와 불교지도자를 양성해왔다. 이번 2025학년도에는 불교학과 41명, 범패학과 13명 등 총 54명이 입학했다. 이에 동방불교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포함해 불교학과 85명, 범패학과 20명 등 총 105명을 지도한다.

학장 법담 스님은 “2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단 재가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법사교육원은 제18기 입학식을 3월 6일 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들어갔다.

전법사교육원 18기에는 48명의 전법사 후보자들이 입학했으며, 이들은 1년간 전법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전법사교육원을 이수 후 수계산림을 통해 전법사계 수지하면 전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신중일 기자

봉 대한불교화엄승가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회장 이 취임 행

대한불교화엄승가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새로운 회장단의 이·취임식을 거행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화엄승가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함께 수행의 길을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69(2025)년 3월 21일(금) 오후 6시 ■ 주최 : 대한불교화엄승가회
■ 장소 : 롯데갤러리움 웨딩홀뷔페 ■ 문의 : 010-3869-6799

연번	직위	법명	연번	직위	법명	연번	직위	법명	연번	직위	법명
1	고문	자인 (길상사)	10	부회장	원도 (보정사)	19	회원	여해 (여해정사)	28	회원	지우 (가오정사)
2	고문	법우 (지장선원)	11	〃	보현 (보현암)	20	〃	도법 (혜원사)	29	〃	성덕 (수덕사)
3	자문	범혜 (여래정사)	12	감사	의천 (보덕암)	21	〃	지현 (백련암)	30	〃	선혜 (혜림정사)
4	회장	대각 (옥천암)	13	〃	부원 (부원사)	22	〃	법도 (백령사)	31	〃	삼해 (칠불암)
5	수석부회장	천웅 (관음사)	14	총무부장	성담 (대성미륵사)	23	〃	자현 (자현사)	32	〃	지오 (기원암)
6	상임부회장	향공 (견강암)	15	총무국장	관호 (관호사)	24	〃	해안 (법정사)	33	〃	수월 (락서암)
7	상임부회장	수산 (성불사)	16	재무부장	태산 (약사암)	25	〃	진여 (다보사)	34	〃	도경 (보현사)
8	부회장	법봉 (육조사)	17	재무국장	혜명 (혜원암)	26	〃	대화 (관음사)	35		
9	〃	혜광 (도해사)	18	의전부장	정담 (일광불원)	27	〃	원각 (도원사)	36		

대한불교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 신임회장 대각 합장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전수 교육 안내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은 불교문화의례에 가장 핵심 의식이기에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완전개방, 누구나 공유하고 자타일시 성불을 기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불교계 비구 비구니 교법사 교임(AI인공지능 조예가 있는 분 대 환영)
■ 개강일시: 2025년 양 4월 2일(음 3월 5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교육기간: 1년과정 1학기 3개월 2학기 9월부터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명
■ 수 강 료: 매월 20만원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www.dyhs.kr(담양용화사)
2. 각 종단 승적증명서(1부) 또는 승려증 사본 교임확인서
3. 반명함판 사진 3매
■ 교육장소: 담양 용화사 대웅보전
■ 접 수: 수시모집
■ 교 과 서: 별도 (개강일 분배)

교육원은 전통의식을 여법히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하며 출재가자도 환영
전과정을 통하여 수료 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 자격증을 부여함 (수료증 포함)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교육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담양 용화사 전화:061-381-2683, 팩스:381-2749, e-mail:hb480806@hanmail.net
증명:도월수진 부법주:대진 합장

불교복지 30년…“미래 100년 나눔 꽃 피우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30주년 기자간담회

6월 11일 30주년 법회 · 세미나
‘나는 절로’ 확대…‘선명상’ 중점
불교복지아카데미 등 신규 사업
30년史 · 불교사회복지편람 발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통한 자비실천에 앞장서 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종교를 넘어 사회복지계 전반 대표 법인으로 성장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그간의 업적을 토대로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재단은 올해 다양한 창립 30주년 행사를 진행한다. 6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드레곤시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대법회 및 세미나’가 봉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종단 스님들, 정부부처 관계자,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시설이용자들과 함께 3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재단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가치·비전을 담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에는 재단 30년 역사를 정리한 ‘30년사(史)’가 발간된다. 1995년 2월 출범 이후 단일 재단으로는 최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빛난 불교사회복지의 흐름이 포관적으로 서술될 예정이다. 또 재단과 역사를 함께 해온 사부대중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시선으로 재단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사회복지법인의 현황을 정리한 ‘불교사회복지편람’ 발간도 준비 중에 있다. 발간을 위해 재단은 현재 불교계 법인과 산하시설 현황을 조사 중으로 시설과 교구본사, 운영지원사찰, 중앙종무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며 6월부터는 유선 추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편람은 불교사회복지분야의 총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불교사회복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불교계 사회복지 정책 수립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재단은 12월 열릴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30년사’와 ‘불교사회복지편람’을 봉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신규사업도 시작한다. 불교사회복지협의회 발족을 위해 단체들과 논의 중이다. 이는 불교사회복지단체 간 교류 확대를 통한 불교적 가치 확산과 법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 전국 불교복지기관 및 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를 통해 법인은 다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복지실천활동을 펼치는 사부대중이 좀 더 마음을 모아 여법한 복지불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불교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제안, 연대사업 전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사회복지 아카데미를 구성,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인재 양성에 힘쓴다. 3~11월 총 17회 연수 및 교육을 진행하며 필수과정(2회), 직급별 과정(8회), 직무별 과정(6회), 영역별 과정(1회) 등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교육과 대면연수, 해외 연수 등으로 진행된다.

30년 간 꾸준히 진행해 온 재단 대표 브랜드 사업인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대학생 공양 지원 프로그램 ‘청년밥심心’, 불교아동미술큰잔치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특히 재단은 자살예방을 위한 치유와 돌봄을 위해 선명상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마음을 보듬고 챙겨 스스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려 온전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불교복지활동으로 쉼 없이 계속됐다”면서 “30년간 성장과 성숙을 이뤄낸 재단은 더 원만하고 포용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미·홍주읍성 가톨릭 성지화 멈춰야 합니다”

종교편향특위, 3월 4일 충남도청 관계자와 면담

천주교 박해와 순교 역사만 덧씌워져 성지화가 추진되고 있는 해미읍성과 홍주읍성 등 충청남도 사적지에 대해 불교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교편향특위)는 3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의장실에서 충남도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공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적지에 특정종교 성지화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천주교 순례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지차체인 만큼, 이번 종교편향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이날 위원장 선광 스님은 “충남도가 관할하는 서산 해미읍성과 홍성군의 홍주읍성은 사적지로 보존돼야 마땅하지만, 곳곳에 순교 상징물이 설치돼 있어 순교성지로만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역사왜곡과 종교편향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광 스님은 “공공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지 말고 다양한 역사와 종교적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교편향특위 스님들도 해미읍성·홍주읍성 성지화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범수 충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오늘 스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한다. 다만 편향적인 행적의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종교 간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진행할 때 유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종교편향특위는 면담에 앞서 회의를 열어 충청남도의 종교편향 및 불교왜곡 현황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차후 일정을 잡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들 “권익 향상” 다짐

3월 5일 서울 진관사서
‘역대 종회의원 간담회’
선배스님들 고견 경청
향후 종책 활동 논의해



조계종 제18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과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불교 발전과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았다.

제18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3월 5일 서울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는 선배스님들의 경험과 고견을 경청하고, 향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종책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역대 종회의원을 역임한 자민(7~9대)·일법(11·12·14대)·본각(11~13대)·계호(12~14대)·경륜(12~14대)·정성(13대)·일초(14대)·성정(14대)·도수(16대)·희유(16대) 스님을 비롯해 18대 종회의원 정운(17·18대)·철우(17·18대)·혜도(17·18대)·정관(17·18대)·진상(18대)·수경(18대)·혜성(18대)·법해(18대)·지인(18대)·설해(18대) 스님이 참석했다.

제18대 비구니 종회의원 종책모임 회장 정운 스님은 개회사에서 “1대부터 17대까지 활동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 70여 명 가운데 18명 스님은 열반하셨고, 52명이 생존해 계신다”며 “후배 의원스님들의 요청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꺼이 응해주신 선배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에 선배스님들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자민 스님은 “처음에는 비구니 종회의원이 2명뿐이라 발언권을 얻기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그럼에도 똘똘 뭉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했고, 무사히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며 “지금의 활동 소신껏 이어가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본각 스님은 “당시 비구니 종회의원 님들의 자리는 제일 뒤였다. 그럼에도 종법 개정과 특별선원법 제정 등 여러 가지 일에 애써왔다”며 “생생한 종회 활동 경험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제18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전국비구니회와 역대 종회의원들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내영 기자



‘반야심경 한 호흡 챌린지’ 톡톡 튀는 신입 맞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x3).”

한 학생이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한 호흡에 〈반야심경〉을 쏟아냈다. 3월 6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한편에 마련된 불교학생회 신입 법우 모집 부스에서는 ‘〈반야심경〉 한 호흡에 말하기 챌린지’가 한창이다.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이 챌린지에서 성공한 학생들에게는 푸짐한 선물도 주어져 즐거움을 더했다.

이화여대 불교학생회(회장 고채영)는 3월 4일부터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챌린지와 함께 꽝 없는 뽑기를 통해 간식과 솜사탕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 인형탈을 쓰고 목탁을 치는 깜짝 이벤트도 마련해 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불교를 친근하게 알리기 위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 덕분에 이미 15명이 현장에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내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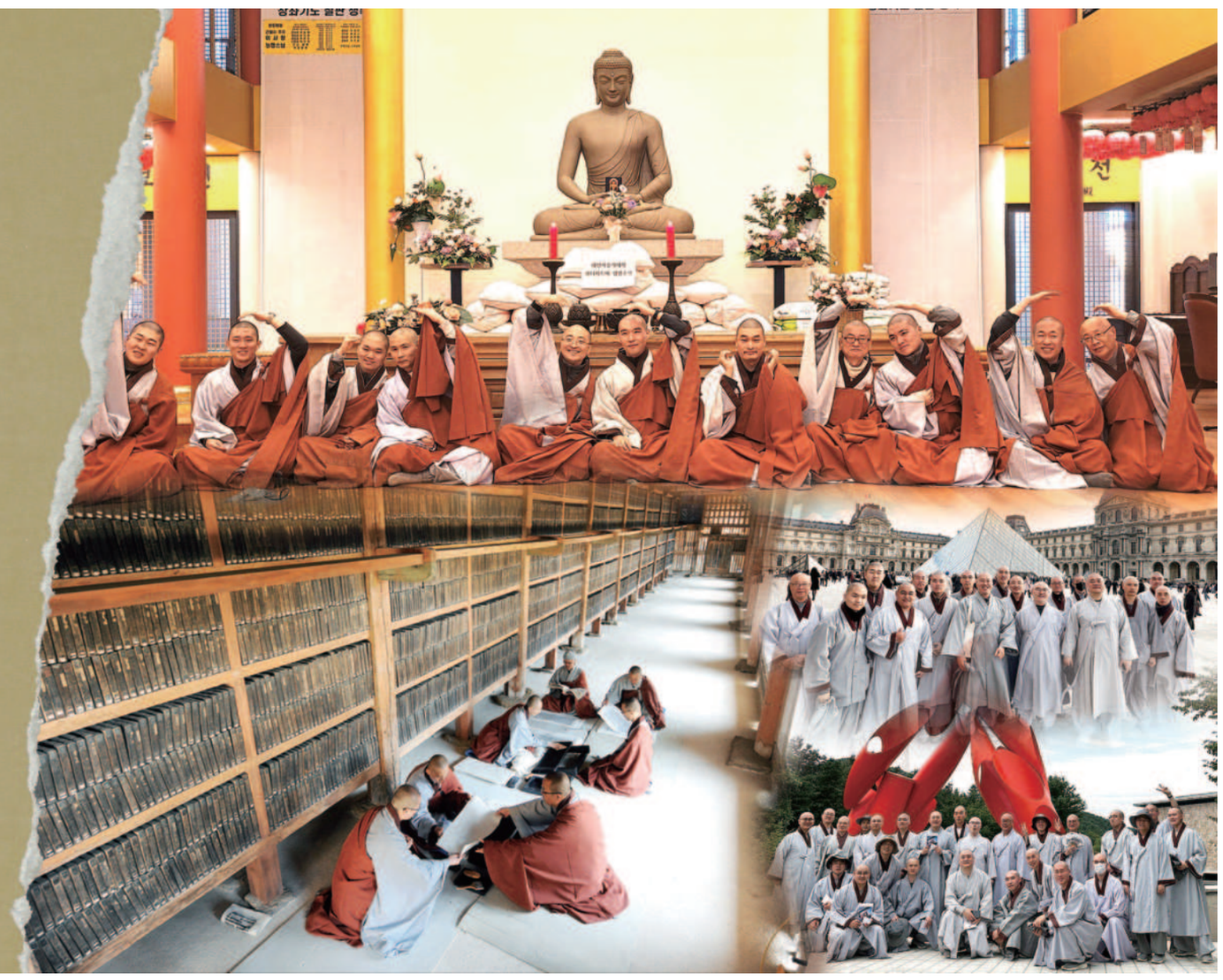
2025년 해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공고

특전 및 교육 프로그램

1. 팔만대장경 제작을 위한 판각 및 인경 교육 프로그램
2. 해외 성지순례를 통해 다른 나라의 불교와 승단의 체험 및 타종교와의 교류
3. 해외 대학(중국 칭화대, 일본 하나조노, 대만 법고산)과의 학술 교류 협정으로 유학 지원
4. 선교 일치를 위해 매 안거 해인총림 선원에서 일주일간 용맹정진
5. 해인동문회에서 매년 해인 장학금 지원
6. 해인사승가대학 졸업 후 일반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
7.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수준별 맞춤 교육 통한 외국어 수업

모집대상
- 신입생 ○○명
- 편입생·재입학생 ○명

전형일정
- 신 입 생 입방대기 : 2025년 3월 10일(월요일) 부터
- 서류접수 마 감 : 2025년 3월 22일(토요일)
- 신입생 갈마 및 입방 : 2025년 3월 23일(일요일)



동국대, 역대급 교육·학생복지 인프라 개선

3월 4일 새 학기 맞아 시설 라운딩
방학 동안 40억원 투자…개선 공사
마음 쉼터, 네오스페이스 새로 조성
돈관스님 "교육 인프라 개선에 최선"
오는 9월엔 로터스관 착공식 '기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는 3월 4일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학내 개선 연구 교육 시설을 점검하는 라운딩을 진행했다. 사진은 경영관 지하 1층에 새로 조성된 복합라운지에서 이용 학생과 인사를 나누는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교육·연구 및 학생 복지 인프라에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동국대는 3월 4일 2025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개선 학내 시설들을 둘러보고 점검하는 라운딩을 진행했다. 이날 라운딩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등 학내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동국대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약 4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교육·연구 및 학생 복지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라운딩에서는 다향관, 학림관, 경영관 등의 등 신설 및 개선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교육 및 학습 인프라 개선으로는 최첨단 AI-SW 교육 및 학습 공간인 '네오스페이스(Neo Space)'가 새로 구축돼 눈길을 끌었다. 다향관 1층에 자리한 '네오스페이스'는 약 480㎡(145평)의 공간에 167석 규모의 컴퓨터 실습실과 그룹 스터디 및 학습을 위한 3개소의 세미나실, 1개소의 라운지를 갖췄다.

또한, 신공학관 노후 승강기와 경영관, 사회과학관 등 5개 건물의 강의실 및 학생 공간 냉난방 시설을 교체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습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을 닫은 경영관 지하 1층 학생식당이 복합라운지로 새롭게 탈바꿈해 학생 복지 인프라를 조성한 것도 이번 사업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개선 사업을 통해 경영관 지하1층에는 300석 규모의 학생식당과 카페, 편의점이 들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학생식당 등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했던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및 예술대학 학생들은 일반 카페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분위기와 시설을 갖춘 학생식당을 이용하게 돼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노후화됐던 학림관 앞 휴게공간은 '학림관 마음쉼터'로 새롭게 변모하여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났다.

김도현(동국대 경영정보학과 3학년) 씨는 "경영관 근처에는 사용할 식당이 없어서 멀리 떨어진 다른 건물에 가서 식사를 하곤 했다. 이번에 새로 복합라운지가 조성되며 경영관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이동하며 버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학업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 환경 개선으로는 만해관 4층에 석좌교수 공용라운지를 구축했으며, 신임교원들을 위한 공간 확충과 환경 개선을 지원해 교원들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 교원, 교직원,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어 왔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학내 시설이 많은 부분 개선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동국가족이 그 혜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웅 총장은 "이사장스님의 원력과 중대한 결심으로 학교의 숙원사업인 로터스관 착공식을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다. 로터스관 건립에 매진하여 동국대가 최고의 교육, 연구 및 복지환경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부여중·고, '가람'으로 교명 변경

3월 5일 교명 현판식 개최해
돈관스님 "자부심 갖길" 당부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여자중·고등학교가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가람중·고등학교(이하 가람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여자중·고등학교는 3월 4일 교명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가람중·고등학교'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사진〉

이날 제막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김규환 법인총무부장, 민보경 가람고 교장, 백계순 가람고 교감, 박현정 가람중 교장, 김선홍 가람중 교감 등 법인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이날 치사를 통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을 이야기하며, 95주년을 맞은 가람중·고등학교가 새로 탄생하는 날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큰 강을 의미하는 새 교명 '가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학교의 95년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는 오늘을 기억하고, 불법승 삼보와 함께 가람 속의 동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개교 95주년을 맞은 가람중·고등학교는 2024년 4월 제355회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승인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제357회 이사회에서 동대부여중·고의 교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을 의결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조국 위해 장삼 휘날린 비구니스님의 독립운동사"

비구니회·승가연구소, 2월 28일
다큐 뮤지컬 '비·스·독' 시사회
진우 스님 "헌신 널리 알려지길"



약 1시간 30분 동안 펼쳐진 공연에서는 각 장면마다 선명한 역사적 순간이 그려졌다.

장삼 차림의 배우들이 천천히 무대에 올라 한 사람씩 이야기의 문을 연다. 때로는 절제된 몸짓으로, 때로는 힘 있는 노래로 그려지는 장면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구니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다.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다큐 뮤지컬 '비구니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비·스·독)'의 첫 무대가 올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주최하고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심원 스님)가 주관한 이번 공연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비구니스님들의 숨겨진 활동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졌다. 제작은 뮤지컬 극단 야성이 맡았다.

1막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한 푼 두 푼 모아 조국을 위해 바쳤던 옥수동 미타사 40여 명의 비구니스님. 유관순 열사와 친구로, 3·1 만세운동에 활약했던 보각 스님. 독립운동가들의 자금 조달과 연락책을 맡아 항일운동을 지원하고, 안창호 선생의 옥바라지를 했던 옥봉 스님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2막은 제주불교의 중흥과 독립운동에 힘쓴 봉려관 스님의 이야기로 시작됐다. 관음사와 항일운동 발상지인 법정사를 창건하고, 독립자금을 대주는 등 독립을 향한 스님의 강한 의지와 역동성이 표현됐다. 스님의 상좌였던 성해 스님은 은사스님 곁에서 묵묵히 독립활동을 지원하며 끊임없는 정진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불교계 인사들의 배후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던 상근 스님의 활동을 끝으로 공연은 마무리됐다.

공연 후 열린 시사회에서는 뮤지컬 제작 과정과 공연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항일투쟁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와 깨달음의 정신이 깃든 숭고한 실천이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불자로 그리고 한 국민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역사 없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 없다. 올해는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5년이 되는 해로, 3·1절 연휴를 맞아 뮤지컬을 보고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보리수 아래, 월정사 순례 참가자 모집

4월 12~13일, 버스킹 공연 모집도

보리수아래가 장애인의날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월 12~13일 개최하는 '2025년 월정사 산사순례' 참가자와 버스킹 공연자를 모집한다.

이번 순례는 혼자 여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월정사 현지 버스킹 공연을 통해 불교계에 장애인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지원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천 옥천사 주지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 무진 스님을 지도법사로 월정사와 상원사 순례, 자연 명상마을 명상체험, 숲길 걷기,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4월 12일 월정사 경내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에서는 장애시인, 발달장애피아니스트 등 장애인불자예술인과 비텐스 범준 스님, 불자 음악인들이 함께 공연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장애인 10명, 비장애인 11명 총 21명이며 모집기한은 3월 15일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장애인들의 원활한 산사순례를 위해 후원도 받고 있다. (국민은행 841501-04-027667 보리수아래)02-959-2611 임은호 기자

"3월엔 여행을"…3만원에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 3월 31일까지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운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사진〉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 여행가는 봄 캠페인' 행사와 연계해 템플스테이 참가비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다.

해당 이벤트는 전국 113개 사찰에서 진행되고, 약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 모두 3만원에 체험할 수 있고, 당일형 템플스테이는 외국인에 한해 1만 5000원에 참가할 수 있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선착순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템플스테이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새로움과 변화를 상징하는 봄을 맞아 초록빛 기운이 가득한 봄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과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www.eng.templestay.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 봉축 선포…부처님오신날 행사 시작

2월 28일 봉축 선포식 개최
원명스님 "燈 의미 되새기자"

"지금부터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은사 사부대중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길 기원하며, 부처님오신날 봉은사 봉축행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는 2월 28일 경내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봉축 행사에 들어갔다.〈사진〉

봉축선포식은 사찰 내 봉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등 모연 독려와 등 달기를 통한 연등 공양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원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이 멀리 있어 보이지만, 금방 다가온다. 우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의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세상을 밝게 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연등 공양의 의미를 강조했다.

원명 스님의 봉축 선포문 낭독 이후 봉은사 대중스님들은 소원지를 작성해 등에 달았다. 국장스님들은 신도들이 작성한 소원지를 직접 등에 달아주며 가내 평안도 기원했다.

한편, 선포식에 앞서 봉은사 길놀이 풍물단은 법왕루 아래에서 경내 앞마당까지 풍악을 올리며 길놀이를 해 흥을 돋웠다. 신중일 기자

삼학설행사, 티베트불교 수행자 과정 온라인 개강

오는 3월 16일까지 강좌 접수
불교 기초논리학 강의도 개설

티베트 불교의 사상과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좌가 개강한다.

티베트 불교 삼학설행사(주지 텐진 남카 스님)는 "오는 3월 20일부터 '불교수행자 양성 교육과정 온라인 코스'를 처음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삼학설행사가 개설한 온라인 강좌 '날란다 코스'는 총 4학년으로 구성됐으며, 람림(보리도차제), 불교철학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과별로 매주 금요일 강의가 업로드 된다. 또한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는 강사인 텐진 남카 스님과 질의응답이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된다.

학년제 코스와 함께 3월 22일에는 불교 기초 논리학 강좌가 개강한다. 해당 강좌에서는 티베트 불교 논리학의 핵심인 '뒤다'를 통해 기초 논리학을 배울 수 있다.

텐진 남카 스님은 "모쪼록 이전의 다겁생 동안 쌓은 선연들이 더욱 의미 있게 되고, 또 현생에 좋은 습기를 심어 내생에 더 나은 삶이 되며, 더 나아가 해탈과 성불의 길로 갈 수 있게 정진하시길 바란다"며 "이 교육과정이 그러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강희망자는 3월 16일까지 문자(02-358-4221/010-3264-4221)로 문의하거나 네이버 폼(https://naver.me/Gip3eMzO)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중일 기자

진흥원, 노상충 대표 초청 화요열린강좌

3월 18일 마포 다보원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3월 18일 오후 7시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노상충 캐럿글로벌 대표를 초청해 3월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AI시대 경영의 길, 명상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좌는 현대사회 경영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기에 적합한 수행으로서의 명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노상충 대표는 성균관대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일산 백병원 임상감정 인지기능 연구소에서 뇌파를 이용한 뇌과학 연구를 했다. 지금은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학 중이다. 새로운 문명의 시기에 직면한 CEO들과 리더들의 의식 증진을 위한 수행 공간인 '센터원'을 설립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당근농장 이야기〉 〈일터 영성〉 등이 있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의 화요열린강좌는 BBS-TV와 유튜브 '헬로붓다 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新春’ 교토·간사이서 부처님 향훈 느끼다

새봄에 가볼만한 간사이 불교성지들

박영빈 객원기자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하지만 고대 불교사로 살펴보면 한국과 뗄 수 없는 가까운 나라가 또 일본이다. 일본의 정신적 수도인 교토를 중심으로 한 긴키(近畿), 간사이(關西)지방은 수많은 사찰들과 불교유적들이 가득한 곳이다. 담징 스님이 금당벽화를 그린 호류지(法隆寺)부터 거대한 대불이 모셔진 도다이지(東大寺)등 이미 한국의 불자들이 익숙한 성지들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들은 물론, 유명한 사찰들 사이에서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스쳐지나가는 곳들도 많다.

무엇보다 3월 교토는 만개한 벚꽃들로 꽃대궐을 이룬다. 오는 봄날 싱그러운 봄 향기와 함께 간사이 곳곳에서 피어나는 불향(佛香)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간사이 불교 순례를 다녀온 박영빈 객원기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간사이 사찰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회랑에서 바라본 시텐노지 금당. 회랑으로 가람을 둘러싸는 양식은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다. 사진=위키피디아 재팬

오사카 시텐노지

오사카 텐노지구에 소재한 시텐노지(四天王寺)는 593년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에 의해 건립됐다. 백제에서 초빙한 목수들이 지은 사찰로 당시 일본 조정이 나서서 지은 최초의 관영사찰로써 “일본 불교 최초의 도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심 가람의 배치가 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으로 늘어선 백제식 가람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호류지식 가람양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

이때 백제에서 온 목수 중 한사람인 유중광(柳重光)이 쇼토쿠 태자로부터 ‘콘고(金剛)’라는 성을 하사받아 콘고 시게미츠(金剛重光)로 이름을 바꾸고서 대대손손 목조건축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회사를 꾸렸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는 ‘콘고구미(金剛組)’다. 참고로 콘고구미는 근대까지도 시텐노지의 유지보수를 담당했으며 지금도 본사건물이 시텐노지 옆에 위치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전화(戰火)와 태풍에도 다시 세워진 사찰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목탑과 정문, 금당, 남측 회랑이 완전히 불타버렸다. 이후 복원불사에서 목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로 복원이 되면서 옛날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양식은 처음 창건 되었던 아스카 시대의 양식으로 복원 됐다. 새롭게 복원된 금당의 본존불은 구세관세음보살(救世觀世音菩薩). 일본에서는 쇼토쿠 태자가 관세음보살의 현신으로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태어난 인물이라는 ‘태자신앙(太子信仰)’이 전하고 있는데 본존인 구세관세음보살이 바로 쇼토쿠 태자의 본모습이라는 것이다.


고야산 근본대탑. 내부에는 불상과 벽화로 입체만다라를 조성했다.

흔히 종파불교의 특색을 가진 일본으로 아무리 크고 역사가 깊은 사찰이라도 특정 종단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시텐노지는 일본불교 최초의 도량이라는 이름답게 특정종단이 아닌 모든 종단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찰로 성장했다. 현재는 쇼토쿠 태자를 종조로 하는 화종(和宗)의 총본산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일본불교사에 유명한 위인들과 고승들이 참배하였고 이들을 기리는 법당이 사찰 곳곳에 숨어있다.

시텐노지 곳곳에 있는 작은 법당이나 사당들 가운데 무심코 지나가지만 중요한 곳이 바로 ‘반쇼도(番匠堂)’라고 하는 작은 사당이다. 쇼토쿠 태자를 모신 타이시덴(太子殿) 근처에 위치한 이 사당은 바로 시텐노지를 건설한 백제의 목수들을 위한 사당이다. 목수들을 위한 사당답게 사당의 앞과 좌우에는 목수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로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의 형태를 만들어 새긴 비석과 깃발이 걸려있다. 사당 안에는 곱자(曲尺)를 들고 있는 쇼토쿠 태자상이 모셔져 있는데 매달 22일에만 문을 열어 개방한다.


쿠라마데라에서 키후네신사로 넘어가는 트래킹 코스.

와카야마현 고야산

와카야마현에 소재한 고야산(高野山)은 예나지금이나 일본불교 최고의 성지로 손꼽히는 영산(靈山)이다. 816년 당시 일본에서 존경받던 고승 쿠카이(空海)대사가 개산한 이래 지금까지 진언밀교의 법등을 이어온 성지다. 흔히 고야산이라는 이름에서 어느 산 하나가 고야산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해발 1,000m급 산 8개에 둘러싸인 해발 800m의 고원을 일컫는 말이 바로 고야산이다.

흔히 한국에서 고야산이라고 하면 쿠카이 대사의 묘인 오쿠노인(奧之院)이 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무덤이 있는 곳,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왜 이곳이 그렇게 중요한 성지로 꼽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여기서 간략하게 고야산의 연기설화를 이야기 해보자.

806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쿠카이 대사는 명주항의 바닷가에서 “내가 받아 이은 교법을 펼칠 인연처가 있거든 먼저 일본으로 돌아가 알려다오”라고 발원하며 삼고저를 일본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삼고저가 오색구름을 타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삼고저가 있을 곳을 찾아 일본 각지를 행각하던 중 지금의 나라(奈良)의 어느 곳에서 희고 검은 두 마리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냥꾼이 나타나 “이곳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간 산속에 스님이 찾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개들이 안내할 것입니다”하곤 사라졌다.



고야산 오쿠노인에 모셔진 무덤들, 일본역사의 유명인사들의 묘도 다수 존재한다.

쿠카이 대사가 남은 개들을 따라 산속 깊은 분지에 이르자 한 소나무 위에 오색광명을 비추는 삼고저가 걸려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고야산은 진언밀교의 근본도량이자 일본에서 손에 꼽히는 성지로 공경 받는다.

쿠카이 대사는 835년 세납 62세에 입정에 들었다. 입적이 아닌 입정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입정에 들기 보름 전에 이미 자신의 몸을 둘 동굴을 정하곤 곡기를 끊고 선정에 든 채로 좌탈입망하였기 때문이다. 대사의 법구는 다비하지 않고 유언에 따라 동굴에 모시고 문을 봉인하였는데 80여년 후, 조정에서 코보 대사(弘法大師)라는 시호와 함께 괴색의 가사를 공양 올렸는데 이때 가사를 법구에 입히기 위해 굴을 열었을 때 대사의 법구에 혈색이 돌고 머리칼과 손발톱이 자라나 있었다는 설화에서 코보대사가 아직 살아서 미륵보살이 오실 때까지 선정에 들어 계신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이와 함께 미륵보살이 하생하실 때 오쿠노인에서 코보 대사가 일어나 마중을 나가기에 이때 함께 미륵보살을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뵙고자 오쿠노인에 묘를 만들던 것이 바로 지금의 수많은 무덤들이 만들어진 시작이다.

교토 쿠라마데라

교토 북쪽 쿠라마야마(鞍馬山)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쿠라마데라(鞍馬寺)는 다른 교토의 유명 사찰들에 비해 접근성이 어려운 편이고,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 중 한 곳이다.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인 히에이산(比叡山)과 함께 교토의 북쪽을 수호하는 산으로, 고대부터 교토의 영산으로 이름이 높아 천황이 직접 참배하는 등의 역사가 전한다.

쿠라마데라의 시작은 770년 당에서 칸테이(鑑禎)스님이 비사문천(다문천왕)을 본존으로 모신 암자를 건립한 것이 시작으로 전한다. 이후 어느 귀족이 꿈에서 계시를 받이 칸테이 스님이 모신 비사문천상 옆에 천수관음상을 조성해 모시고 규모를 갖춘 사찰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진언종의 사찰로 이어져오다가 12세기부터는 천태종 사찰로 법등을 이어오다가 1947년에는 단독 종교법인이 됐다. 한때는 산내에 19개의 암자와 말사를 거느린 대찰이었으나 19세기 초에 산 전체가 타버리는 대화재로 쇠퇴했다가 부흥에 성공했다.

쿠라마산이 유명한 이유는 영산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호법마왕(護法魔王)이라는 특이한 호법신의 존재도 있다. 일본의 여러 설화 속에 등장하는 요괴인 텐구(天狗)가 이곳에서는 호법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이 텐구는 그냥 요괴도 아닌, 여러 귀신들을 부리는 급이 높은 요괴로 이곳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파계한 출가자가 죽어서 텐구가 된다고도 한다. 그렇기에 불법을 꺼려하여 수행자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쿠라마의 텐구는 특이하게도 불법을 수호하는 텐구다. 전설에는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동생인 요시츠네가 쿠라마에 유폐되어 있을 때 밤마다 호법마왕이 산속에서 검술과 병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전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쿠라마데라의 금당 뒤로 이어지는 산속에는 호법마왕은 모신 법당과 요시츠네가 검술을 배웠다는 터가 남아있다. 호법마왕을 모신 법당에서 산 아래의 키후네 신사(貴船神社)로 이어지는 산길은 조금은 가파르지만 트래킹 코스로도 유명해 등산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깍기…),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75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00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2차 : 1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범어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기억상자' 개막

3월 1일, 1층 중정서 개막식
범어사의 독립운동 참여 조명
"독립운동가들, 보살행 실천"
태극기 만들기 등 체험도 마련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참석내빈이 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를 관람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3월 1일 박물관 1층 중정에서 3·1절 106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를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어사의 독립운동 참여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막식은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함께 3·1절 106주년 기념식 후 성보박물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은 전시 소개와 함께 관장 정오 스님의 환영사,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관장의 기념사가 이어졌으며, 테너 김준연과 소프라노 박현진이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특별 공연을 펼쳐 깊은 울림을 전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환영사에서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이라 한다. 독립운동가들은 바로 이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며,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며 "범어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실천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곤 관장은 기념사에서 "범어사의 만세운동은 단순한 독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를 향한 시민혁명의 시작"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범어사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범어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진 역사적 연결고리를 더 많은 국민이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 후 참석 내빈들은 2층 기획전시관으로 이동해 전시를 관람했다. 1부 '범어사와 3.1운동'에서는 범어사의 근대교육기관 역할과 독립운동에 기여한 불교 지도자들의 활동이 조명됐다. 1919년 부산 동래장터에서 시작된 범어사 승려들의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과정이 사진과 문서 자료를 통해 전시됐다. 특히, 백용성 스님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자료, 한용운 스님의 불교계 독립운동 관련 서신, 오성월 스님의 교육 활동과 독립자금 조달 기록 등이 공개돼 불교계의 독립운동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2부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과정을 소개했다. 전시에서는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과 직면한 도전들을 살펴볼 수 있다.

3부 '임시정부에서 정부로'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역사적 계승을 다뤘다. 특히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의 의미를 되새기며,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와 함께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는 체험, 태극기 만들기 활동, 그리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퀴즈 풀이 등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운동의 흐름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복지 등기사업' 후원

2월 26일, 영도구청서 전달식
"지역사회에 도움이 돼 감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이 부산 영도구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등기사업'에 후원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2월 26일 영도구청에서 '2025년 복지 등기사업' 사업비 전달식을 갖고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후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복지 등기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전달식에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과 김기재 영도구청장, 복지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혜도 스님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신도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복지 등기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실천해 주신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복지 등기사업'은 2021년 영도구에서 처음 시작된 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대표적인 위기가구 발굴 사업이다. 영도구는 등기 우편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복지정책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한마음선원 부산지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백현식 삼광사 신도회장 "초심으로 정진"

삼광사, 제23대 신도회장 취임식



백현식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이 삼광사 제23대 신임 신도회장〈사진〉으로 공식 취임했다.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는 3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23대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삼광사 주지 용암 스님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김영 전 부산MBC 사장, 손영길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수석부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지 용암 스님은 백현식 신임 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백현식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삼광사 발전을 위해 정진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백 회장은 "천태종의 대표사찰 삼광사 신도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며, 도용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덕수 스님, 종단의 원로대덕 스님, 그리고 주지 용암 스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과 주지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삼광사와 불교 발전을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지 용암 스님은 "백현식 신임 신도회장님은 순수한 불자이자 기업인·체육인이며, 유기견 보호에도 앞장서는 자비 실천가"라고 소개하며 "삼광사가 불자들에게 편안한 수행공간이 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명 스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

3월 3일, '비문전쟁' 출판기념회



도명 스님의 신간 '비문전쟁' 출판기념회가 3월 3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에서 개최됐다.〈사진〉 책 '비문전쟁'은 일제가 변조한 비문을 추적해 원래의 내용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고대사의 숨겨진 조각을 찾아가는 역사서다.

이날 행사에는 여산 정여 대종사(금정총림 범어사 방장)를 비롯해 정오 스님(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법안 스님(성주사 주지), 혜진 스님(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 하림 스님(미타선원 회주), 정관 스님(원오사 주지) 및 민홍철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또한 이용종 식민사관청산 전국연대 대표, 이순일 식민사관청산 가야국사 경남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도명 스님은 "'비문전쟁'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식민사관의 영향과 임나일본부설의 허구를 바로잡기 위한 책"이라며 "왜곡되고 형클어진 우리의 고대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역사 해석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고대사의 진실을 밝히고 후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파라미타 2025년 정기총회 개최

2월 28일, 더파티 시청점서



파라미타부산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 부산파라미타)가 2월 28일 더파티 부산시청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부산파라미타 총재 정오 스님, 부총재 도림 스님, 사무총장 해공 스님과 백명숙 협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부산파라미타 총재 정오 스님은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출범한 부산파라미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을 다지며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숙 부산파라미타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발전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총재스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협회가 포교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많은 학생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파라미타는 신임 사무총장으로 해공 스님을 임명했다. 이어 2024년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안건을 논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25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지도자 세대교체 및 공립학교 분회개설을 위한 홍보 및 지원 확대 △분회중심 소규모 활동 지원 및 청소년 불자 기본소양 자질 함양 △예불경진대회, 붓다볼 명상, 포교 활동 활성화 등이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제42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5년 4월 5일~5월 24일
매주 토요일 (8주간)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교재비 별도
문 의 : 031-470-3200/319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평생 모은 고승 유묵, 통도사에 전하다

김연호 선생, 3월 4일 기증식
수집 유물 196종 331점 기증
"문화유산, 함께 할 때 가치"
통도사, 관련 특별전 추진 예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목청 김연호 선생이 유물 196종 331점을 통도사성보박물관에 기증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3월 4일 주지실에서 '목청(牧靑) 김연호 성보문화유산 기증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연호 선생은 오랜 기간 수집해 온 유물 196종 331점을 통도사성보박물관에 기증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기증된 고승 유묵과 전적류를 포함한 성보문화유산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기증은 김연호 선생의 깊은 신심과 불교문화 보존에 대한 헌신이 담긴 결정으로, 불교 성보문화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원력의 표현이다.

김연호 선생은 "이번 기증은 50년 불교운동을 회향하는 자리이자, 불교정신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순간"이라며 "기증된 유물들이 반영구적으로 보존되면서 불교문화의 가치를 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대승기신론소'(운흥사판)를 비롯한 불교 서적 91종과 '경봉 스님 유물' 등 고승들의 글씨 작품 105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승들의 유묵은 불교사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선사들의 수행과 사상이 담긴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김연호 선생은 "불교의 1300년 역사 속에서 스님들은 붓을 들고 수행과 가르침을 기록해왔다. 이번 기증이 그 정신을 보존하고, 많은 이들이 유물을 통해 불교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유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제가 수십 년간 모아온 유물들을 통도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뜻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목청 김연호 선생은 1952년 경남 하동 진교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제천에서 수의사로 활동하며, 불자의식운동을 실천해 온 인물이다. 또한, 불교신자 결사 모임인 '우리는선우'의 제천지회장으로 활동하며 불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문화유산 수집은 1977년 청풍 지역 수몰로 인해 지역의 향토 유물이 반출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그는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수십 년간 다양한 유물을 수집해 왔다.

김연호 선생은 유물 수집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어린 시절, 마을의 형이 땅속에서 출토된 토기를 몰래 헛간에 숨겨 놓은 것을 보면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회상했다. 이후 다솔사에서 환경스님을 만나면서 선서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승들의 서예작품을 꾸준히 수집해 왔다.

그는 과거에도 국립청주박물관, 월정사, 제천 의림지역사박물관 등에 총 1250점이 넘는 유물을 기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국민훈장과 충청북도 도민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前) 충북문화유산단 이사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이번 기증이 불교문화 확산과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특히 불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증된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보다 많은 이들이 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와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연호 선생님의 원력이 담긴 기증이 통도사의 수행 전통과 불교문화의 계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이번 기증을 기념해 김연호 선생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특별전을 기획 중이다. 전시는 기증된 고승 유묵과 불교 서적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진응 스님은 "특별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증자의 뜻을 널리 알리고 불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사, 소외이웃 위한 '따뜻한 쌀' 나눔

2월 29일 전달식 개최



광주 신광사(주지 동현 스님)가 2월 29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신광사의 아름다운 쌀 나눔'을 개최하고 신도들이 마련한 '자비의 쌀'을 광주지역 불교단체에 전달했다.〈사진〉

'자비의 쌀'은 지역 불교단체에 각 300kg씩 1800kg이 전달됐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동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도들이 후원한 쌀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도솔암, 방생 기금으로 자비 실천

600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



고창 도솔암(주지 성본 스님)이 정월 기도 회향 방생 기금을 이웃 공동체 후원물품으로 회향했다.〈사진〉

성본 스님은 2월 27일 자비신행회에 물품을 전달하며 "정초 기도 회향 시 방생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신도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필품 후원을 결정했다"며 "자비신행회와 협력해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600만 원 상당의 생활 물품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바램 △광주YWCA한빛타운 △광주YWCA솔빛타운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양행선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녹야선원, 아이들 위한 와플 나눔

2월 27일 전달식 개최



광주 녹야선원(주지 아도 스님)이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와 공동으로 2월 27일 광산구 송광종합사회복지관 2층 송광한사랑방에서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직접 만든 와플 간식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와플은 송광어린이집, 송광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송광정신재활센터 등 200여 명에게 전달됐다.

2년째 간식을 전달하며 '찾아가는 포교'를 진행하는 아도 스님은 "불자들이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틈을 내 사회 선한 영향력 차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주 보람된 것"이라며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봉사를 하니 더 보람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붓다봉사단·진안군봉사센터 MOU 체결

지역 현안 해결 함께 하기로
협약 후 지역에 찐빵 나눔도



(사)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총괄이사 현진 스님)와 (사)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요섭)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사진〉

3월 5일 협약식을 체결한 이들은 △인적·물적 교류 협력과 정기적인 공동 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해외 봉사활동 지원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협력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붓다봉사단은 매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화와 연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 후 붓다봉사단은 지역 주민과 직장인,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와 찐빵 나눔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지역 주민 300명에게 따뜻한 국수와 찐방을 함께 나누며 온정을 나눴다.

(사)붓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작은 나눔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붓다봉사단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진 스님(붓다봉사단 총괄이사)도 "자비나눔 활동은 불자로서 중요한 덕목"이라며 "따뜻한 국수와 찐빵을 통해 몸과 마음을 채우고 다시 일상의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정사 원행 스님 "물질 집착이 갈등 양산"

대한언론 문화포럼, 특별 강연서 법문

대한언론문화포럼이 주최하는 제2차 문화포럼이 2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대산 월정사 선덕(禪德) 원행(遠行) 스님이 연사로 초청되어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을 주제로 법문했다.〈사진〉

원행 스님은 강연에서 "물질보다 정신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대사회가 지나치게 물질적 풍요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나눔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화합과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과 국운의 방향에 대한 철학적, 도교적, 불교적 관점을 결합한 내용이



중심을 이뤘다. 탄허 스님의 생전 법문 영상 등도 대중에게 소개됐다.

특히 '지축의 변화와 인류 문명의 흐름' 주제 강연서는 지구 자전 운동과 인간 사회의 변화를 연결 지어 해석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언론인회 측은 "이번 강연은 단순한 역사적 고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시대적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남해 용문사, 어르신 위한 만발 공양

3월 26일까지 상주면 일원서



경남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을 마련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3월 5일부터 26일까지 상주면 내 9개 마을 어르신 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행사가 열리는 각 마을의 식당에서 건강 보양식을 제공된다.

만발공양은 3월 5일 금양마을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6일 대량마을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지 승원 스님은 "상주면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연염색 명장 용경 스님 후광갤러리 초대전 개최



천연 염색을 수행으로 삼아온 용경 스님(보문사 주지)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예산 후광갤러리에서 '천연염색 명장 용경 스님 초대 작가전'을 개최한다.〈사진〉

용경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스님이 직접 키운 쪽(藍, Indigo)을 활용해 염색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용경 스님은 "'쪽빛'은 불교에서 청정과 지혜를 상징하며, 염색 과정은 수행자의 마음 닦기와 닮아 있다"고 말했다.

용경 스님은 밀양 보문사에서 오랜 시간 천연 염색 과정을 수행으로 삼아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 제24기 입학식 개최



천안 각원사불교대학(학장 대원 스님)이 3월 2일 대웅보전에서 제24기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입학식에서는 170명(주간 79, 야간 91)의 신입생이 학칙준수와 정진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신입생은 3개월의 기본교육을 거쳐 6월부터 1년 과정을 시작한다.

주지이자 학장인 대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좋게 생각하고 좋게 인정하고 좋게 행동하고 그렇게 되면 다 복이 되고 그야말로 좋은 인연이 만들어져 간다"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용화사 충북불교대학 제31기 입학식 개최



청주 용화사 부설 충북불교대학(학장 각연 스님, 용화사 주지)이 3월 4일 경내 관음전에서 제31기 입학식을 열고 123명의 신입생을 맞았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각연 스님, 지장 스님(용화사 템플스테이 원장), 범성 스님, 조기태 신도회장, 박청규 불교대학총동문회 회장, 신입생을 비롯해 용화사 신도회 임원진과 회원 및 기수별 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장 각연 스님은 환영사에서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마음을 닦고 인생의 지혜를 찾는 과정"이라며 신입생들에게 꾸준한 정진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영동 생활불교실천대학 9기 졸업 · 10기 입학식



영동 생활불교실천대학(학장 종림 스님)이 3월 2일 9기 졸업식 및 10기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졸업식에서는 29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입학식에서는 53명의 신입생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림 스님, 원오 스님(원오사 주지)을 비롯해 손창희 영동군불교신도연합회장, 장인학 영동불교신도연합회고문 등이 참석했다.

종림 스님은 환영사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 더욱 신심 깊은 불자로 거듭나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가득한 부처님의 인연을 지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천안 마이트리 봉사단 부석사 관음상 친견



마이트리 봉사단(단장 혜정 스님)은 3월 5일 천안서부역 무료급식소에서 짜장밥 무료급식 행사와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친견 일정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무료급식 행사에서는 마이트리 봉사단이 직접 조리한 짜장밥 등을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 150명에게 전달했다.

봉사단은 나눔 행사 후 서산 부석사로 이동해 100일 동안 부석사에 모시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친견했다.

이날 부석사 주지 원오 스님은 "환수 운동을 위해 10만인 서명을 받고 있다"며 "관세음보살좌상이 꼭 돌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불교 경제활동, 비윤리적이지 않다”

킨 쳉 교수 언론 기고문 통해
‘불교 경제 윤리적 의미’ 강조

박정현 객원기자

대만의 사찰 ‘포광산’ 내에 위치한 ‘스타벅스’와 ‘7-Eleven’을 본 후 불교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 한 전문가의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불교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그의 연구는 불교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 자본주의가 결합하는 복잡한 양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 출신으로 미국 모라비안 대학에서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종교를 가르치는 킨 쳉(Kin Cheung) 교수는 3월 4일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기고문을 통해 “불교인의 경제적 참여가 비윤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쳉 교수는 중국의 ‘사대 불교 명산’(구화산·보타산·오대산·아미산)이 운영하는 불교 관광 회사들이 주식 시장에 상장된 사례를 들며, 불교가 자본주의 경제에 참여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아미산 관광 주식회사는 1997년에 상장되어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 회사는 불교와 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쳉 교수는 “이러한 기업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불교의 교리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교의 상업적 진화와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교가 자본주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승려나 사찰이 화석 연료 회사와 같은 환경에 해로운 기업에 투자할 경우 불교적 가르침에 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쳉 교수는 “기업의 선택과 투자자의 의도가 중요한 윤리적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투자자가 선택한 기업이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교인의 경제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대만의 불교 지도자이자 포광산의 창립자인 승언 스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승언 스님은 자본주의의 탐욕을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가 부유한 사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불교 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승언 스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불교가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윤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쳉 교수는 “불교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불교 사찰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병원, 자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역설했다.

베트남 롱안성 불교계,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비구 · 비구니 358명 수계
계율 특성 교육에 중점둬


롱안성에서 열린 수계산림 모습.
사진출처=베트남뉴스

베트남 남부 경제의 중심지로 유명한 롱안성에서 구족계 수계산림이 열렸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지난 2월 28일부터 나흘간 봉행된 수계산림에 대해 특별보도 했다.

이번 수계산림은 롱안성 컨저옥현에 소재한 팝민사와 후아빈사에서 봉행됐으며 비구, 비구니를 합쳐 358명의 수계자가 계단에 올랐다. 수계산림의 전계대화상은 베트남 불교 승가(VBS) 집행위원회 의작인 틱 티엔논 스님이 맡았다. 산림 중에는 수계자들을 위한 계율 강의가 진행 됐으며 특히 율사로 유명한 투엔 루앗수 스님이 〈계율의 지범계차〉에 대한 설명했다.

수계산림측은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수계하는 단일 계단인 만큼 두 승단의 계율적 특성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비구, 비구니 율사스님들을 초청하여 계를 받는 것, 계를 배우는 것, 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강의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수계자들이 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베트남 불교 승가에 등록된 롱안성의 사찰은 총 320개소, 포교당, 인법당과 같은 신행활동 거점은 28개소로 출가자는 1586명(비구 사미 728명, 비구니 사미니 858명)도 집계되고 있다. 롱안성 내의 불교계의 활동과 세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현재 13개소의 선방 및 안거센터가 설립됐고 재가자들을 위한 불교대학 혹은 수행과정을 운영하는 사찰은 300대소가 넘는다. 롱안성 측은 “현재 롱안성의 불교계가 사회자선활동을 위해 내는 기부금이 연간 1000억동(한화 약 57억 3천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수계산림 개회식에서 참석한 롱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팜탄호아는 “롱안성의 행정부를 대표하여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성 차원에서 좋은 조건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다른 종교단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번영, 단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구축할 것이다. 이 수계산림은 불교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미래 세대가 계속 지켜나가야 할 모범”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리랑카 불교계, 교황 위한 기도회 열어

교황의 빠른 회복 기원 · 격려 메시지
불단공양 · 사진 앞 꽃 올리기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스님들.
사진출처=카톨릭헤럴드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기 감염과 양쪽 폐에 발생한 폐렴으로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에서 교황의 회복을 위한 기도와 격려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스리랑카 불교계는 스리랑카 가톨릭계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의 마하보디 불교 공동체의 아그라쉬라바카 사원에서 봉행된 기도회는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봉행을 결정했으며 스리랑카 주교회의 소통부 사무국장인 주드 크리샨타 페르난도 신부와 다른 두명의 가톨릭 신자가 함께 참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14일 기관지염 치료를 위해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 다중미생물성 호흡기 감염과 양쪽 폐에 폐렴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때 중태에 빠졌다고도 전했으나 교황청은 “천천히 회복 중이며, 업무에 어느정도 복귀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기도회가 봉행된 아그라쉬라바카 사원은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교황은 스리랑카 방문의 마지막 날에 일정을 변경하여 사원을 방문했으며, 사원에 봉안된 불사리와 목련, 사리불 두 존자의 사리에 예를 표했다. 교황의 방문을 기념하여 당시 아그라쉬라바카 사원은 1년에 한 번만 공개되는 사리들을 특별히 교황에게 공개했고, 교황은 현지 불교예법에 따라 맨발로 사원을 방문했다. 이로써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역사상 공식적으로 불교사원을 방문한 2번째 교황이 됐다.

기도회 동안 불단에는 교황 방문 당시의 사진이 걸렸으며 스님들은 불단에 먼저 공양을 올리고서 교황의 사진 앞에 꽃과 초를 올리고 그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기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페르난도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재임기간 내내 종교 간의 교류를 교황직의 초석으로 삼았다”면서 “스리랑카 불교계가 먼저 자발적으로 교황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하고 우리를 초청한 것에 매우 감동했다”고 감사 인사했다. 이어 “모든 종교와 사람들에게 진지한 형제애로 다가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노력이 불교도와 다른 신앙 공동체들과의 관계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불교 공휴일에 주류 판매 전격 검토

관광객 유치 일환…오후 2~5시 완화
보건부 장관 인증 · 총리 절차 후 확정


방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카오산 로드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자료사진.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태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5월 비사카 부차일(Visakha Bucha: 부처님의 출생·깨달음·열반을 기념하는 날로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공휴일)에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태국 정부는 비사카 부차일에 모든 편의점과 유흥 주점 등에서 모든 종류의 주류 판매를 금지해 왔다.

방콕포스트의 3월 4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주류음료관리위원회는 최근 비사카 부차 기간 일부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주류 판매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판매가 허용될 장소는 국제공항, 야간 유흥업소, 호텔, 관광 명소와 국가적 행사 장소 등이다.

앞서 지난달 파에통타른 시나와트란 총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주류 판매 금지를 완화하라는 자영업자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총리는 불교 공휴일 기간 주류 판매 금지 조치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라고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주류음료관리위원회의 이같은 권고에 따라 해당 안건은 앞으로 15일간 공청회를 거친 후 보건부 장관의 인증과 총리 승인 절차를 받으면 확정된다.

박정현 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대형괘불 시초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된다



국보로 지정예고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형 규모 괘불도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扶餘 無量寺 彌勒佛 掛佛圖)'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괘불도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로, 압도적 규모와 다양한 도상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다.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괘불도는 처음에는 본존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좌상 형식으로 그려지다가 점차 입상 형식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괘불도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칠장사 오불회 괘불' 등 7점의 국보와 '죽림사 세존 괘불' 등 55점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 건이 전해진다.

이번의 국보 지정 예고는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만이다.

△화기 등의 기록에 제작자, 화제(畵題)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학술적 가치가 큰 작품 △동일 유형의 도상 중 가장 선구적이어서 해당 도상 확산에 영향력이 큰 작품 △장황 등 구성 요소가 완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변형이나 왜곡이 적으며 표현 기법 등 예술성과 제작 기술이 탁월한 작품 등을 지정 기준으로 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국가유산청 3월 6일 지정예고
韓불교만 있는 특유 대형불화
14m '장엄신 괘불'에 시작점
충청 미륵불 신앙 전통 보여줘

초대형 규모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 형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장엄신(莊嚴身, 괘불에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꾸민 부처님) 괘불의 시작점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비례, 적·녹의 강렬한 색채 대비, 밝고 온화한 중간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불화의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이 괘불은 화기(畵記)를 통해 법경(法冏)·혜윤(慧允)·인학(仁學)·희상(熙尙) 등의 제작 화승과 1627년(조선 인조 5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들 보다도 제작 연대가 앞선다.

또한 화기에 '미륵(彌勒)'이라는 주존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 일찍이 충청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 속에서 제작된 괘불도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제작되는 유사한 도상의 괘불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괘불도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유산청은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규모·장엄성·시기성·상징성·예술성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괘불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동국이상국전집〉권18~22, 31~4은 고려 중기의 학자이자 관료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문집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및 〈동국이상국전집〉권18~22, 31~41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 문화유산 소장처 교육

3월 18일 대면 강의 진행
3월 19~24일 온라인 교육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이 "2025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이하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며, 대면강의는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온라인 교육은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기본교육은 '불교건축'을 주제로 총 5강으로 진행된다. 제1강은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이강근 모란미술연구소장이 '불교 건축의 이해'를 주제로 불교 건축의 기원과 성격, 한국 사찰 건축의 역사를 폭넓게 설명한다. 제2강은 3월 18일 오후 2시부터 류성룡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사찰 목조 건축의 구조와 이해'를 강의한다.

제3강부터 제5강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3강은 홍병화 STD엔지니어링 문화연구실장이 '조선후기 사찰 배치형식의 특징 및 변화'를, 제4강은 엄기표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교수가 '한국 불탑의 흐름'을, 제5강은 오세덕 경주대 문화유산학과 교수가 '불교 건축과 승려 장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3월 11일 오전 9시부터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양일간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신중일 기자

종정 성파 대종사 "자비의 마음으로 살라"

BTN 30주년 기념법회서 법문
자광 대종사 등 1000명 운집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개국 30주년을 맞은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의 발전을 축원하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 법을 신봉하며 자비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 것을 당부했다.

BTN은 3월 2일 서울 방배동 BTN 사옥 1층 무상사에서 '개국 30주년 기념 성파 대종사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와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전 전계대화상 무봉 성우대종사를 비롯해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자현 스님, 구본일 대표이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문에 앞서 "BTN 개국 30주년을 축하한다"고 축원한 성파 대종사는 설잠 스님(김시습)의 시 '사청환우(乍晴還雨)'를 인용해 현



3월 2일 열린 BTN불교TV 개국 30주년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문을 설하고 있다.

시국을 살아가는 불자들의 자세를 설했다.

"사청환우우환청(乍晴還雨雨還晴) 천도유연황세정(天道猶然況世情). 예아변시환훼아(譽我便是還毁我) 도명각자위구명(逃名却自爲求名). 화개화사춘하관(花開花謝春何管) 운거운래산부쟁(雲去雲來山不爭). 기어세인수기인(寄語世人須記認) 취환무처득평생(取歡無處得平生)."

성파 대종사는 설잠 스님의 시에 대해 "비가 오고 다시 개듯이 사람들의 인정 또한 그러하다. 나를 칭찬하다가도 갑자기 비난하고, 공명을 피하려 하더니 스스로 공명을 좇는다"며 "평생 계속될 기쁨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시국을 보면, 모두 자기가 옳다고만 말한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자기 주장만 하지말고 남의 생각과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전 시대일 수록 불자들은 부처님을 법을 잘 믿고 따라야 한다. 부처님 법을 신봉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BTN은 1995년 3월 1일 개국하며, '세계 최초 불교 전문 TV방송'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3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전한다는 사명아래 한국 최대의 영상 법당으로서 최선을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던 불교TV는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종합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TN은 3월 7일까지 지난 30년 동안 시청자가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 특별프로그램들을 편성했다. 특히, 3월 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주제로 특별생방송을 진행했다.

신중일 기자

양자역학으로 본 연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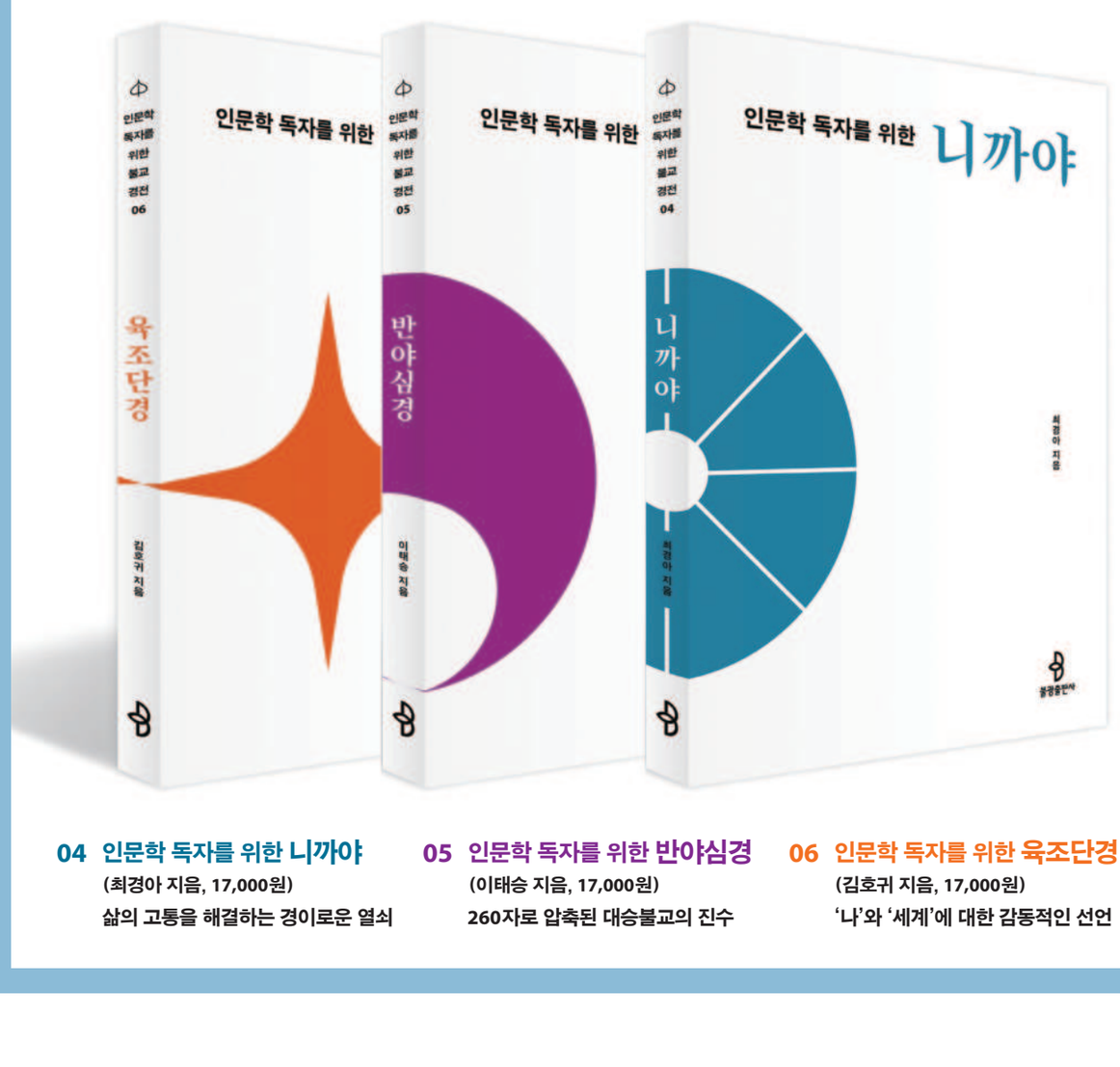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개설
강사에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

(사)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주형)은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2025년 원효학당(1) 강좌'를 진행한다.

'현대물리학으로 보는 불교: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으로 보는 연기와 무아의 진공묘유(眞空妙有)'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는 '연기적 그물망에서 나타나는 허망한 세계와 연기공(緣起空)'을 시작으로 △'상대성이론의 세계(3월 26일)' △'양자역학의 세계에서의 참여(4월 2일)' △'유위의 세계와 무아: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간도 그렇다(4월 9일)'로 진행된다.

강좌는 (사)한국불교연구원 서울법당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 진행한다. 강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불교연구원 홈페이지(https://kibs.or.kr)를 통해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02-762-5624 신중일 기자



04 인문학 독자를 위한 니까야 (최경아 지음, 17,000원)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경이로운 열쇠
05 인문학 독자를 위한 반야심경 (이태승 지음, 17,000원) 260자로 압축된 대승불교의 진수
06 인문학 독자를 위한 육조단경 (김호귀 지음, 17,000원) '나'와 '세계'에 대한 감동적인 선언

불교 입문자와 인문학 독자를 위해
주요 경전의 핵심 내용만 쏙쏙!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4~6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고 가벼운 판형
부담 없이 읽어 보는 나의 첫 불교 경전 입문서



01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 (김성옥 지음)
02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하영수 지음)
03 인문학 독자를 위한 화엄경 (박보람 지음)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5~3/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구경:진리의말씀(양장) 선물용 경전	석지현 옮김	민족사	6	묘법연화경(개정판)	이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2	성철스님의 돈황본육조단경	성철 스님	장경각	7	불멸(1)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3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비움과 금강경:근본불교와 대승에서의 공	시현 번역과 해설	사유수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수록*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5	서장(대혜보각선사서) 간화선의 교과서	조계종 교육원 편찬	조계종출판사	10	서장*대혜스님의 선수행편지 모음집	고우/전재강	운주사

책세상

다시 불러보는 시대의 어른 '비구 법정'



비구법정
여태동 글, 덕조 스님 감수
중앙출판사 / 2만9천원

원적 15주기 기념해 평전 출간
민주화 인사 등 새로운 이야기도
유년기부터 원적까지 삶 재조명
원고 · 미공개 사진 100여 장 수록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법정 스님. 현대불교 DB

한 시대의 법문이었던 '무소유'의 법정 스님(1932~2010) 원적 15주기를 맞아 스님의 평전이 출간됐다.

〈비구 법정〉에서는 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려진 법정 스님의 삶과 더불어 197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역사 등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스님의 집필 원고 350여 장을 수록해 스님을 좀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책은 △법정 스님의 생애 △출가 초기 활동과 사상적 토대 형성 △불교 교단 바로세우기와 사회민주화운동 △불교생태주의 사유형성과 자기관조 △종교간 대화와 세계체험 △법정 스님의 주요 저서 등 크게 여섯 개의 장에서 스님의 삶과 공부를 살펴본다.

책은 30년 넘게 불교신문 기자로 재직하며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을 역임한 여태동 기자가 자신의 박사논문 '법정의 시대정신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와 2020년 불교언론문화상(신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사를 종합한 것이다.

책에는 저자가 현장을 취재하면서 발굴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 청년시절의 행적이 자세하게 적혀있다. 법정 스님은 중학교 시절부터 목포에서 유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책에는 스님의 성적표와 미공개 사진 100여 장을 수록했으며, 저서 〈무소유〉의 출간 과정에서의 인연담도 담겨있다. 스님은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을 탐독한 후 운허 스님을 도와 〈불교사전〉을 편찬했으며, 한문으로 된 팔만대장경을 한글화 하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학문적 토대 위에서 집필된 법정 스님의 저서에는 초기 불교사상에부터 반야·법화·화엄·선사상 등 불교 전체를 아우르는 실천적 가르침이 녹아 있다.

법정 스님은 해인사 학인 시절에 문학과 철학·예술 등의 영역을 넘나들며 공부했고, 함석헌, 장준하, 황산덕 등과 교유하며 사회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시작했다. 책에 의하면 스님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이름을 올렸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다. 또한 1980년대 광주민중항쟁을 목도한 스님은 군사독재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법정 스님은 대중이 알고 있는 자연주의 에세이스트였을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 세계 평화, 전쟁 반대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운동가이기도 했다.

법정 스님의 사상은 그가 원적에 든 이후 저서가 절판돼 연구 환경이 위축됐지만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저자는 "이 책 〈비구 법정〉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법정 스님의 다양한 가르침이 '법정학'으로 정립되어 후세에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여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님의 부재로 법문 '무소유'가 무색해진 시절에서 스님을 기억할 수 있는 출간은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어른'이 절실한 시대, 어른의 책 한 권이 반가운 이유다.

식물도 감정이 있을까



월간 '불교문화' 3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대중문화지 월간 〈불교문화〉 3월호(통권 제295호)가 발간됐다.

3월호 특집은 '식물도 감정이 있지 않을까'로 불교가 식물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그리고 현대적 시각에서 이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민태영 한국불교식물연구원 원장은 '불교적 관점에서 본 식물의 생명성'을 통해 불교에서 식물을 감정과 의식이 없는 무생물로 간주했지만, 동시에 초목을 해치는 행위를 죄로 여기며 생명체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한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인문학과 교수는 '초기불교에서 보는 식물에 대한 인식'에서 〈숫따니빠따〉 등 일부 경전에서는 식물의 생명을 인정하는 듯한 구절이 있으며, 불교 수행자들이 식물 파괴를 삼가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식물이 유정이든 무정이든 존중해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고 봤다.

더불어 특집에는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의 '대승불교에서 보는 식물에 대한 인식' △남효창 숲연구소 이사장의 '식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 탄공 스님의 '식물에도 불성이 있는가' 등이 실렸다.

2025년 상반기 '아름다운 말을 쓰자' 캠페인에서는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가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며,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사고의 깊이와 삶의 태도가 달라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절집으로 가는 길-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 '10분으로 배우는 불교-현명한 장로(長老)와 어리석은 늙은이'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담겼다.

신중일 기자

비천, 천상을 노래하다



월간 '불광' 3월호

하늘을 나는 천인(天人), '비천(飛天)'. 사찰에 가면 법당 천장이나 벽화, 석탑, 범종 등에 새겨진 비천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비천은 부처님 설법이나 극락정토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데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비천은 천의(天衣) 자락을 휘날리며 꽃비를 뿌리거나, 춤·음악·향을 공양하며 부처님의 설법을 찬탄한다.

월간 〈불광〉 3월호(통권 605호)는 '비천, 천상세계를 노래하다'를 특집 주제로 풍부한 사진·도판과 함께 '비천'을 소개한다.

'포토에세이'에서는 울진 불영사, 완주 송광사, 영덕 장육사, 문경 대승사 등 사찰 법당 속 비천을 사진으로 담았다.

박수정 신경주대 악기제작학과 교수는 성덕대왕신종, 오대산 상원사 동종, 양평 상원사 동종 등 범종에 새겨진 다양한 비천상을 집중 조명하며, 주수완 우석대 경영학부 예술경영전공 교수는 불교미술에서는 배경음악(코러스) 같은 존재인 불교미술 속 비천을 조명한다. 간다라의 불설법 부조에서 보이는 비천과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미술로 알려진 5세기 전반의 고구려 장천1호 무덤에 그려진 벽화 속 비천, 석탑·승탑에 새겨진 비천 등을 살펴본다.

비천이라는 말은 인도 신화 속 존재인 압사라스(Āpsaras)를 포함해, 때때로 이들을 부인으로 삼고 있는 간다르바(Gandharva, 건달바), 그리고 긴나라(Kinnara) 무리 등을 포함하며 넓게는 깔라빙가(Kalaviṅga, 가릉빈가) 등도 포함된다.

심재관 상지대 교수, 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장은 이러한 인도 신화 속 비천인 압사라스의 이야기와 함께 앙코르와트·반티아이 스레이에 부조된 압사라를 조명한다. 강애경 박사는 비천과 유사한 기독교의 천사에 대해 살펴본다.

신중일 기자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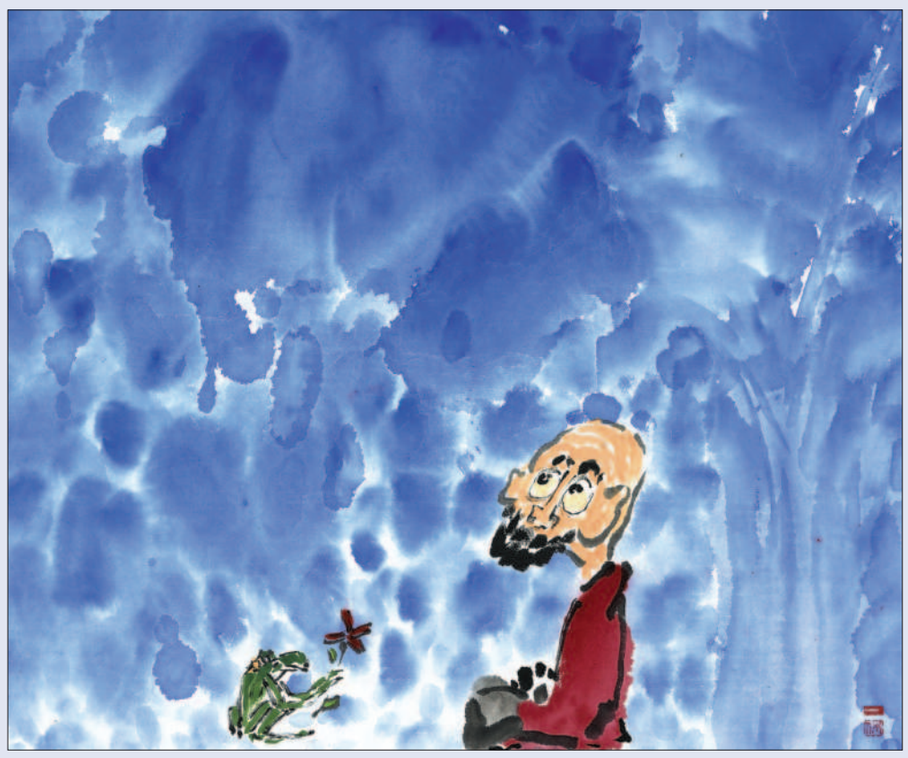
글 인해, 명오 | 17,500원 | 296쪽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달마가 내 눈 앞에 나타난다면…



김양수 作, 무애자재.



달마가 웃더라 나를 보고
황청원 글, 김양수 그림
책만드는집 / 1만4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황청원 · 김양수의 달마 시그림책
달마 시와 달마 그림 75편 수록
출판기념회 및 백팔 달마도 전시
3월 26일~4월 1일 인사아트프라자

"꽃 한 송이 드리지요 / 무애자재의 꽃입니다. / 무엇에도 걸림 없음 부러워 / 그래서 드리는 꽃이지요" - 무애자재.

황청원 시인과 김양수 화백이 펴낸 〈달마가 웃더라 나를 보고〉는 75편의 달마 시와 75폭의 달마 그림을 담고 있다. 시 그림책이다. 황청원 시인 특유의 사유가 담긴 짧은 시에 김양수 화백의 새로운 해석이 그려낸 달마도는 독자에게 진한 인상을 남긴다.

"달마가 온 자리는 남인도 칸치푸람엔 / 아무리 둘러봐도 달마의 흔적이 없다 / 오래전 달마는 말없이 먼 길을 떠났단다 / 이미 달마의 집은 내 안에 오직 우뚝하다" - 달마의 집은.

달마, 선종의 불가에서 '달마'는 언어적 설명이 쉽지 않은 대상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의 '개념'이다. 그래서 달마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는 것일까. 아니면 쉽지 않은 각자의 마음을 그렇게 이리저리 그려보는 것일까.

황청원 시인은 달마가 2천년을 건너 자신 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 마음을 시로 썼다. 그 먼 곳까지, 아무리 둘러봐도 달마의 흔적은 없었고, 먼 길을 떠났다는 전설만 들리고, 하지만 분명한 그의 집인 달마.

오랫동안 수묵의 붓으로 선의 순간을 그려온 김양수 화백은 시인의 문장 옆에 달마의 집을 그렸다. 달마의 순간. 그의 붓은 늘 '순간'을 기다리는 삼매였다. 이번엔 달마. 색은 먹에서 시작되고 많은 색이 필요 없다. 주제가 달마니까. 그 동안 작은 그림으로 큰 그림을 그려왔던 김 화백은 이번에 경계를 더 없이 떠난 듯하다.

"우리는 꿈꿨었다 / 이 시대의 달마를 // 우리는 통했었다 / 달마를 사이에 두고 // 우리는 걸림이 없었다 / 달마의 인연 끈으로 // 우리는 받았었다 / 달마가 주는 미소까지 // 시 짓고 그림 그리는 동안 / 달마는 우리의 안락처였다"

황청원 시인과 김양수 화백은 3월 26일 오후 4시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1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4월 1일까지 책에 실린 작품을 전시한다.

지혜는 각자 내면에…스스로 마음 들여다봐야



반야심경
미야시카 유코우 감수,
정보현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 1만6천원

〈반야심경〉 쉽게 설명한 해설서
"의미 정확히 알면 감동 커져"

〈반야심경〉은 종파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친숙한 경전이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서와 해설서가 있어왔고, 꾸준히 독송과 사경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이 이토록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반야심경〉은 고작 262자(한문 본)의 짧은 경전임에도 방대한 내용을 품고 있어 '작은 대경전'이라 불린다. 언제든 독송하고 사경할 수 있을 만큼 친숙하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이 깊은 세계가 숨어 있다. 이 경전의 매력은 바로 그 반전과 친숙함 속에서 펼쳐지는 심오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책 〈반야심경〉은 〈반야심경〉의 구절을 세세히 나눠서 현대어로 풀어냈다. 누구라도 그 이면에 숨은 심오한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책은 간결한 설명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반야심경〉을 풀어낸다. 온갖 고뇌로부터 해방되는 과정과 어떤 수행단계에 있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또한 일러스트로 내용의 이해를 돕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책에서는 〈반야심경〉의 원문을 그대로 싣고 이를 해설한 후 일러스트와 도표, 사진 등으로 부연 설명을 붙여놓았다.

책에 의하면 〈반야심경〉은 전체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리와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알게 되면 감동이 더욱 깊어지며, 〈반야심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책에서는 산스크리트어(일부는 팔리어) 원전과 대조하며 그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반야심경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반야심경〉은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경전이다.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출가자의 수행에만 활용했던 소승불교(부파불교, 상좌부불교 등)와는 달리, 대승불교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대승불교의 이념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이러한 〈반야심경〉의 이해를 돕는 사전 지식들을 소개한다.

제2장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는 본격적으로 〈반야심경〉을 마디마디 끊어서 아주 세밀하게 해부한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화자는 관자재보살이다. 관자재보살은 명상 중에 부처님께 이끌리듯 깊은 반야바라밀다라는 수행에 들어갔다. '행심반야바라밀다시'를 '그 깊은 수행을 하던 때'라고 설명한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 명상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이 명상을 통해 관자재보살은 하나의 수행을 완성한 것이다.

〈반야심경〉은 세상에 출현하는 모든 부처들이 부처가 된 까닭은 진언(만트라)인 반야바라밀다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반야바라밀다를 독송하며 수행하면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고 전한다. 자신을 방해하는 것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차원에 도달하면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그곳으로 향하는 계단이 되어주는 것이 반야바라밀다이다. 수행 단계가 상징하는 각 층은 이미 각자의 내면에 존재한다. 우리의 내면에는 시야가 확 트인 위층이 있음에도 대부분 이를 깨닫지 못한 채 번민하고 괴로워한다. 하지만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고 각자의 안에 있다. 〈반야심경〉은 그 내면의 지혜 즉, 각자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일러준다.

박재완 기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서봉 반산 편저
담앤북스 / 1만8천원

명료한 강설에 풍부한 예화를 곁들여
허상에 집착하는 현대인에 삶의 지혜

불법의 정수를 담고 있는 〈금강경〉은 본래 〈급강반야바라밀경〉이라 하여, '금강 같은 지혜로 저 언덕을 건너가는 경'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는 오랜 시간 국내 여러 사찰에서 강사 및 교수사를 역임해 온 반산 스님이 일반인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명료한 강설에 풍부한 예화를 곁들인 책이다.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금강경〉은 종교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삶의 지혜를 전한다. 하지만 다소 난해한 문장과 심오한 철학적 사상 때문에 〈금강경〉을 바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2500년 전 부처님과 수보리가 나눈 대화를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성취와 경쟁을 강조하며 더 많은 것을 얻거나 지켜야 한다. 그래서 대중은 늘 불안해하며 실체도 없는 대상에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금강경〉은 '나'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전한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차별 없는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금강경〉이 전하는 삶의 지혜다. 이렇듯 〈금강경〉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고 나아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마음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는 〈금강경〉의 한자 원문에 음을 달고, 조계종이 펴낸 우리말 독송을 나란히 실었다. 여기에 반산 스님 특유의 명료하고 유쾌한 강설을 덧붙여 자칫 놓치기 쉬운 경문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찬히 짚어준다. 아울러 강설 사이사이에 선사들의 어록과 일화, 흥미로운 선화를 함께 소개해 흥미를 더한다.

박재완 기자



3천년에 한번 피는 꽃
우둠바라꽃/양자역학의 완성
이 세상은 그물망처럼 심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
과학자들이 과거 100년 이상을 풀지 못한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을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풀 수 있었을까
최준권 지음/신국판/무선/272쪽/값16,000원

자아를 되찾고 자신을 구하는 삶의 길
운명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물레방아처럼 반복해서 돌며 변화를 통해
윤회하고 있다. 넓은 눈으로 창조와 진화를 관찰하면
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준권 엮음/신국판/무선/264쪽/값16,000원

부처님의 말씀으로 엮은 깨달음의 세계
석가의 가르침
3천년 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인 극락에서
머무시던 부처님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받아 왕자로 태어나셨다.
최준권 엮음/ 신국판/무선/256쪽 / 값16,000원

지성의샘 / 서울 중구 을지로14길 16-11 / TEL. 02-2285-0711 / FAX. 02-338-2722 / 이메일 gonggamsa@hanmail.net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⑩ 끄달리지 않는 삶이란



▶한줄 요약
놓음 명상은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감정이나 상황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 집착의 정체를 명확히 바라보고 그것을 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집착 말고 내려 놓으세요

[오늘의 명상]
세간(世間)영욕(榮辱)에 끄달리지 않으니
꽃피고 지는 모습 한가로이 즐기네.
왔다가 머물러 감에 마음 두지 않으니
벌 나비 춤추는 모습이 더 없이 보기 좋구나.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영예(榮譽)와 치욕(恥辱)은 낮과 밤의 관계와 같은 모습입니다.

한 번의 영예는 한 번의 치욕을 반드시 맛보게 되니, 어느 하나를 택하려 하는 것은 하루의 반만 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영예를 영예로 생각하지 않고 치욕을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물론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영예와 치욕, 어느 것에도 끄달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꽃피고 꽃 지는 모습을 그저 인연의 현상으로 바라보듯이, 마음은 한가로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즐길 따름입니다.

마음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번 왔으면 한 번은 반드시 가기 마련이니, 해가 떠서 낮을 밝힌 다음에는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왔다가 간다는 것은 정반대의 현상이 오고 간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기쁨이 왔다 가면 다음엔 슬픔이 오고, 슬픔이 간 후에는 기쁨이 또 옵니다.

오고 가는 것은 윤회의 당연한 현상이므로 굳이 시시비비(是是非非)로 따질 일이 아니니, 이를 벌 나비가 춤추는 모습처럼 바라본다면 얼마나 유유자적(悠悠自適)할 것입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거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과(因果), 즉 원인에 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 뿐이니 함부로 집착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스스로 마음 상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타나는 그 어떤 모습도 인과(因果)가 윤회(輪廻)하는 과정일 따름이니, 마음을 쓰면 쓸수록 애쓰는 내 마음만 애타고 힘들 뿐, 이는 곧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놓음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놓음 명상은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감정이나 상황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 집착의 정체를 명확히 바라보고 그것을 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놓음 명상의 실천은 단순합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떠오를 때마다 "놓아버리자"는 가벼운 다짐과 함께 깊은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 무거운 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놓음 명상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것이 곧 자신과 세상을 함께 편안케 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명상]
온갖 잡물(雜物) 채운 마음 무겁기는 한량없고
갖은 망상(妄想) 들어앉아 청간(淸澗)을 볼 수 없네.
자유로운 새와 같이 걸림 없이 날고자 하는가
온갖 잡념 갖은 망상(妄想) 풀잎에 매달린 이슬 인줄 안다면.

아무리 좋은 황금도 지면 질수록 무거워지고, 아무리 좋은 생각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진다는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는 집착 없는 마음을 가져야 자유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온갖 망상(妄想)이 들어있으면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청간(淸澗, 맑은 골짜기)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아무리 줄인다 한들 영(0)이 될 수 없고, 숫자를 아무리 덧붙인다 해도 숫자의 끝은 나올 수 없습니다.

1(하나)이라는 숫자를 쪼개고 쪼개도 영(0)이 되지 않고, 1(하나)의 숫자를 수억, 수조, 수경으로 불리더라도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없애고 또 없애려 해도 괴로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즐거움을 불리고 불리더라도 더 큰 즐거움을 찾으려는 마음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0,空,공)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 "
> **안 좋은 상황은 인과의 결과**
> **감정에 집착하면 마음만 상해**
> **놓음 명상 정진 통해 다스려야**
> **집착 정체 확인해 내려 놓아라**
> "

첫째는 완전무결함을 뜻합니다.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곧 생사(生死)를 떠난 자리로서 한 점의 괴로움이나 일체의 고통이 사라진 적멸(寂滅)의 상태입니다.

공(0)에 1을 덧붙여도 여전히 공(0)일 수밖에 없으니, 공적(空寂)한 마음에 지옥을 덧씌운다 해도 공한 마음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의 공(0)은 결국 뺄 것도 보탤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를 보태려면 다른 하나를 빼내야 하고, 하나를 빼내면 빼낸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하고 마음이 천만 번 바뀐다 할지라도 제자리에서 들락날락할 뿐이니, 변하고 바뀌는 건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태풍 불어 파도 치고, 밀물 썰물 오고 가도 바다는 변함이 없듯이, 제아무리 찾고 원하고 이룬다 하더라도,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마다 집착한다면, 집착하는 마음만 파도처럼 어지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일어나는 파도 같은 일에 1의 마음을 갖지 말고, 영(0)과 같은 공적한 마음으로 매사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웰패스 명상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웰패스 명상은 마음속 어지러운 망상과 잡념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하나 놓아보십시오. 이슬이 햇빛에 증발하듯, 집착이 사라지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기도로서 시작해 보십시오. 이는 곧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그대는 자비보살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 & 봉사자 민일영 전 대법관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16년째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 민일영 전 대법관(사진 왼쪽)과 사회복지법인 원각 대표 원경 스님이 지난 2월,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들은 "부처님 가르침은 곧 실천이고,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밥퍼'로 맺어진 깊은 우정, '나눔'으로 꽃 피우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신축 법당에서 첫 무료급식이 시작된 2월 12일, 원경 스님을 비롯해 정문헌 종로구청장(사진 왼쪽)과 민일영 전 대법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함께 무료급식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배식봉사와 함께 한겨울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방한용품을 기부하는 자비행을 수년 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 12일,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에게 30년간 무료 점심을 제공해 온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새롭게 단장해 활짝 문을 열었다. 허름한 단칸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어르신들에게 매일 밥을 '퍼주며' 지내온 지 30년. 이제는 '조계종 원각사'와 '원각사 무료급식소' 간판을 단 어엿한 '자가' 건물이 생겼다. 조선 세조 10년(1464)에 낙성돼 연산군에 의해 폐찰됐던 원각사가 창건 560년, 폐찰 520년만에 새로운 도량이자 무료급식소로 문을 연 것이다.

공간은 지하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 1층은 무료급식소, 2층은 법당, 3층은 사무실 겸 접견실로 꾸며졌다. 새로운 급식소에서 열린 첫 공양 나눔에는 사회복지법인 원각 대표이자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정문헌 종로구청장, 민일영 전 대법관, 봉사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함께 한 민일영 전 대법관은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16년을 함께한 '터줏대감 봉사자'다. 각각 불법(佛法)과 법(法)의 길을 걸어온 원경 스님과 민일영 대법관은 배식봉사를 통해 우정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365일 돌아가는 무료급식소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중단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견뎌왔다. 급식소는 건물주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공간이다. 대량으로 음식을 하다 보니 냄새가 배이고, 벌레가 꼬일 것이라는 인식에 여차하면 길거리로 나 앉기 십상이다.

원경 스님은 "이대로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원력으로 "일념으로 기도해 한 세월 한 세월을 견뎌왔다"고 말했다. 보리 스님이 운영하던 무료 급식소가 재정 등 여러 사정으로 문을 닫게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상황을 살피러 왔다가 딱 3년만 해보자고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이다.

"10년 전,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현장에 왔더니 어르신들이 100m 넘게 줄지어 계셨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못 드시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죠. 시대의 어르신들은 생면부지일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인데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다. 어르신들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을 살려낸 것 같기 때문이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365일 중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운영된다. 설날과 추석도 마찬가지다.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게 원경 스님의 설명이다. 가정 같은 포근함을 주고자 설날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복날에는 건강식을 준비한다. 메르스·코로나19 사태에서도 도시락으로 대처해가며 급식을 이어갔다.

스님은 "34개 봉사팀에서 봉사자 300여 명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간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중에서도 올해로 16년 째 묵묵히 급식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귀인'라고 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 '터줏대감' 봉사자"
1975년 고시생 시절 불교와 인연돼
판사 재직하며 서초반야회서 활동해
16년동안 원각사 무료급식소서 봉사

"원경 스님, 우리시대 신장 같은 스님"
30년 만에 자기 도량서 무료급식 나눔
34개 봉사팀, 300여 봉사자에 유지돼
"자립 활동 확대한 복합복지공간 계획"

불교 인연 배식봉사로 잇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학창시절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서울대 법학과 2학년이었던 1975년 겨울, 본격적으로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하며 북한산 금선암에 머물렀던 그는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집중력을 키웠다. 물이 꽝꽝 얼 정도로 한기 가득했던 방에 머물며 공부에 몰두했다. 몸을 녹이며 하라고 스님이 건넨 한 통의 녹차와 법당에서의 조용한 시간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됐다. 대학교 4학년 마지막 겨울, 도선사에 '방부를 튼' 그는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 판사의 길을 걷게 됐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법조계에 몸을 담고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공정함과 자비를 실천하고자 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품고 있던 그는 법조계 재가불자단체인 서초반야회를 만나면서 봉사의 길에 들어섰다.

민 전 대법관은 2009년부터 서초반야회의 활동 중 하나인 원각사 무료 배식 봉사에 자연스럽게 동참했다. 배식 봉사를 하며 법관으로서의 사회적 정의 실현뿐 아니라 직접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한끼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중요한 가치임을 몸소 깨달았다. 그의 배식 봉사는 입소문을 탔고 '밥퍼 대법관'이라는 별칭도 따라붙었다. 이후 그는 동료 법조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봉사를 권했다.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에서다. 2015년 공직을 퇴임한 후에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에 재직하면서부터는 동료들과 함께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겨울에는 방한용품을 후원하고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은 곧 실천이고,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 중 하나라는 생각은 16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눔과 우정으로 피어난 감동

원경 스님과 민일영 전 대법관은 배식 봉사를 통해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자비와 수행, 법과 실천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배식 봉사는 단순한 한 끼 제공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사장으로 있는 (사)나눔과이음 동료들, 특히 젊은 동료들에게 배식 봉사를 권하는 이유다. 지난해 가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의 옆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원경 스님은 봉사 때마다 동료들을 대거 이끌고 나타나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우리사회의 신장'이라고 표현했다. 스님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부족함이 하나 없는 이가 무료급식소 일을 거들어 주니 그만큼 원각사가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법당에 가면 부처님 옆에 신장님이 계셔서 도량이 유지되듯이 민 전 대법관이야말로 실천불교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신장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배식 봉사날 뿐 아니라 간혹 만나 차담을 나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살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원경 스님, 원각사의 미래 열다

원경 스님과 민 전 대법관은 급식 봉사가 단순한 식사 제공만이 아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길 꿈꾼다.

원경 스님의 바람은 원각사의 급식 봉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무료 급식소 운영을 넘어 노숙인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복지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원경 스님은 "원각사가 단순한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합 복지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희망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❶ 각심(覺心) 스님

▶최선일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조선후기 조각승 색난과 그 계보',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조각승 진열'을 발표하며 조각승 계보 연구에 매진했다. 저서로는 〈조선후기 승장인명사전〉(2007),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2011), 〈조선후기 조각승 열전〉(2018) 등이 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과 경북 · 인천 문화유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왜란 땐 僧軍, 종전 후엔 불사 매진한 佛母

임진·정유재란(1592~1598) 중 왜구에 의해 파괴된 사찰은 1600년대 초 전각 건립, 불상과 불화 조성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중심 법당에는 석가여래삼불좌상이나 아미타여래삼존상 등이 봉안되었는데, 이 불상들은 여러 명의 승려 장인들이 공동 작업으로 제작하였다. 이 시기 불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조각승은 현진(玄眞) 스님, 원오(元悟, 圓悟) 스님, 수연(守衍)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조각승들은 사승 관계와 작업 환경을 밝힐 수 있는 문헌이 발견되지 않아 구체적인 접근이 쉽지 않다. 이에 2000년 이후 연구자들이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發願文)이나 사적기(寺蹟記) 등에 언급된 단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밝히고 있다.

현재 1600년부터 1620년까지 전국 사찰 전각에 주독적으로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은 석준(釋俊) 스님, 각민(覺敏) 스님, 각심(覺心) 스님, 태전(太顚) 스님, 학문(學文) 스님, 광원(廣圓) 스님, 천진(天眞) 스님, 인일(仁日) 스님, 행사(幸思) 스님 등 여러 명이 알려져 있지만, 수화승으로 만든 불상이 각각 한두 건밖에 조사되지 않아 활동이나 불상 형태의 특징을 밝힐 수 없다.

이후 사찰에 봉안된 불상의 복장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7세기 초반에 활동한 조각승들의 활동과 계보가 밝혀질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활동한 조각승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불상을 중수하거나 조성한 것을 보면 16세기 후반부터 활동한 스님일 가능성이 있다.

17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2021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본존 바닥에 적힌 조성묵서(造成墨書)가 공개되어 1614년 2월에 각심(覺心) 스님, 응원(應元) 스님, 취명(就明) 스님, 덕현(玄) 스님, 경륜(敬倫) 스님, 인균(印均) 스님, 이환(離幻) 스님이 삼존상(아미타여래,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내용 중에 조성 사찰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삼존상의 높이가 180㎝인 중대형으로 암자보다 규모가 큰 사찰의 중심 전각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 불상이 봉안된 목우암은 법천사(法泉寺)의 산내 암자로 창건되어 성쇠(盛衰)를 함께 하다가 본사인 법천사가 폐사된 후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제작에 수화승으로 참여한 각심 스님의 생애와 승려 장인이 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불상 조성에 참여한 2건의 문헌을 통하여 활동 시기와 조각승 계보를 짐작할 수 있다. 각심 스님은 1605년 10월부터 1606년 3월까지 대략 5개월 동안 수화승 각민(覺敏) 스님과 충남 공주 계룡산 청림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현재 공주 동학사 봉안)과 극락전 아미타여래좌상(소재 미상)을 조성하였다. 그 후 각심 스님은 1614년 2월에 수화승으로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응원 스님 등과 제작하였다.

이런 문헌을 바탕으로 각심 스님은 1570년 전후에 태어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의승군으로 활동하다가 1606년에 수화승 각민이 공주 청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할 때 부화승으로 참여하고, 수화승으로 1614년에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제작한 것을 보면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조각승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배로 추정되는 각민 스님은 호남과 영서 지방 사찰에 현진 스님, 석준 스님, 원오 스님 등과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이다.

각심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석준(1599~1610, 이하 활동기간)·원오(1599~1611)·각민(1605~1614)·각심(1605~1614)·응원(1613~1635)→행사(1606~1648)·휴일(1605~1651)·인균(1614~1655)으로 추정된다.

각심 스님이 제작한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186㎝의 중대형 불상으로, 얼굴과 앉은키의 비례가 1:3.4로 인체에 가깝고, 어깨가 넓어 완만한 편이다. 신체는 당당하고 긴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이 낮아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리 전체에 뾰족한 나발(螺髮)이 붙어 있고, 육계 밑에 은행알 모양의 긴 중간계주(中間髻珠)가 있지만, 특이하게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표현되지 않았다.

얼굴은 길쭉한 편이고, 눈두덩은 두툼하고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다. 미간에서 급격하게 돌출한 콧대, 날렵한 얇은 입술, 목에 자연스러운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따로 제작된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手印)으로 무릎에 얹었다. 아미타불은 대의 안쪽에 복견의를 입지 않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조선 전기의 아미타불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이후 1620년대 이후에 제작된 여래상은 석가여래만 복견의를 입지 않았다. 아미타불은 상체에 대의를 걸쳐 대의 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팔꿈치까지 완만하게 늘어진 후,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하반신에 걸친 대의자락은 배 밑에서 흘러내린 끝자락이 둥글게 말려 있고, 그 옆으로 짧은 사선을 그리면 옷 주름이 접혀 있다. 그리고 왼쪽 무릎에 가늘고 뾰족한 소매자락이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관음보살상은 높이 184.5㎝, 대세지보살상은 높이 191㎝로, 임진왜란 이전인 15-16세기에 주로 제작된 입상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관음보살의 보관 중앙에 화불(化佛)이 없지만, 조성묵서에 아미타여래,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제작했다는 기록을 통해 명칭을 알 수 있다. 관음보살입상은 보관 바깥 면에 구름과 화염(火焰)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정수리에 높이 7.8㎝의 상투[보계(寶髻)]는 끝부분이 뒤쪽으로 꺾인 형태이다. 보관 밑으로 세선(細線)으로 표현된 보발(寶髮)은 두 귀를 따라 수직으로 내려와 귓불에서 꼬여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어깨에서 두 개의 원을 그린 후 세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길쭉한 얼굴에 볼은 통통하고, 날렵한 눈매과 오뚝한 콧대가 본존과 닮았다. 관음과 대세지보살은 손의 위치가 반대이고, 착의법은 관음보살이 대의식(大衣式)이고, 대세지보살이 천의식(天衣式)으로 차이가 있다.

각심 스님과 가장 관련성을 가진 조각승은 각민 스님으로 보인다. 각민 스님은 1605년에 원오 스님이 완주 위봉사 북암(北庵) 목조보살입상(4구, 현재 익산 관음사와 혜봉원 및 완주 위봉사 봉안)을 조성할 때 금(金)을 시주하고, 1606년에 공주 계룡산 청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공주 동학사 봉안)과 1614년에 순천 송광사 비로자나불삼존상(한국전쟁 중 소실)을 조성하였다.

각민 스님이 임진왜란 중에 소실된 순천 송광사 주요 불상을 제작한 것을 보면, 부휴 선수 문도(門徒)에 속한 스님이라 생각된다. 부휴 선수(浮休善修, 1543~1615)는 조선 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高僧)으로, 부휴 문도의 스님들은 여수 흥국사를 중심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휘하의 수군(水軍)에서 활약하였다. 이들 의승군은 좌수영(영취산 흥국사)-조계산 송광사-지리산 화엄사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스님들은 전쟁이 끝난 후 순천 송광사를 시작으로 보은 법주사, 김제 금산사,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강화 전등사 등의 중창과 중수 불사를 주도하였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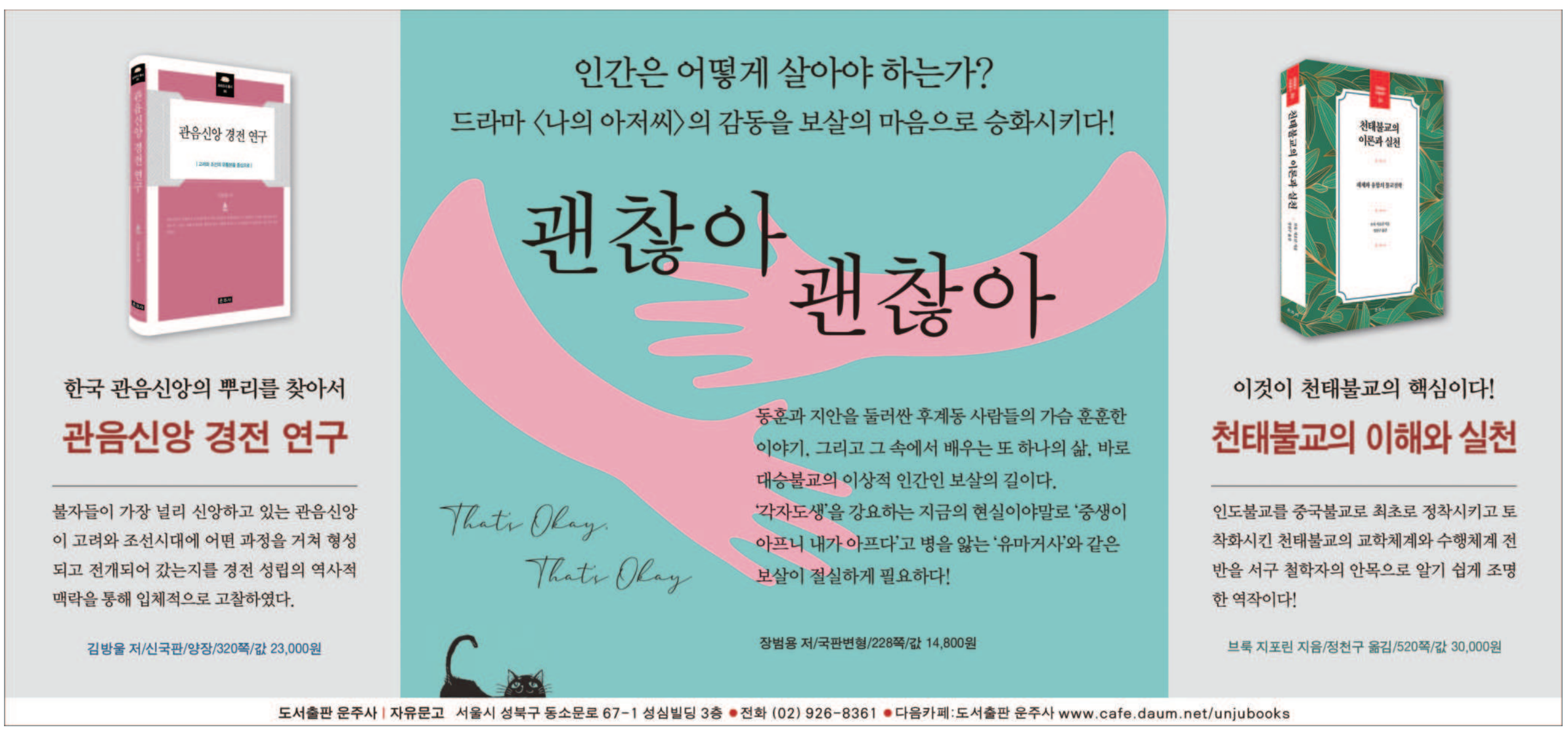


각심 스님이 1614년에 만든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바닥 조성묵서.

부휴 문도로서 의승군 참여 추정
戰火로 쓰러진 사찰 불사에 참여
호남 영서 중심으로 조각승 활동
목우암 목조아미타삼존상 등 조성

각심 스님의 조각승 계보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22호 | 15 | 전면광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 할 수는 없다. 현실 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유마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포교원건물
- 면적 : 120평실평
- 3층/5층, ev유
- 공원옆 건물, 주차가능
- 매가 : 1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2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대구광역시 도심 內 전통사찰

- 불심 강하신 보살님이 창건한 사찰 상속분
- 일반주거지역 : 1500평 추가 매입 가능
- 대웅전(전통기와 고급단청) 지하높이 4m, 산신각
- 종무원(전통기와 고급자재) 지하높이 3m, 요사채
- 문학관(전통기와 고급자재) 지하있음, 기타건물 등
- 천왕문 전각 • 뒤 대나무 숲 • 옆 실개천
- 천하명당 • 대구시 관리 명산등산로 입구

꼭 사찰을 보존 · 운영할분에게 인연을 드립니다
교환도 가능하고 땅값만 받고, 문의하시면 사진 보내드립니다.
010-2512-7777 huhuhu1199@daum.net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매매 · 월세 가능합니다.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 가액 : 7억
- 대지 780평, 실사용 1000여 평
- 사찰 정리후 주지스님은 원하는 만큼 거주 할수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함

사 두실분이나 좋은절 갖고저 하시는 불자님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010-9477-0375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 요양원 2층 180평 (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
- 전세가능 : 보 4000 / 월세 40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4억5천(절충가능)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 중턱
- 대 지 : 350평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 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 가 액 : 답사 후 결정

010-7710-8334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 일층 법당 12-15坪
- 시설비용 400만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조정)

010-9910-5070
010-3906-3711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객방마다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5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태화강 부근 2층 법당포함 35평
- 도시가스 사용
- 보증금 1천, 월세 44만원
- 시설비 : 6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416-10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5000만원

010-7902-0058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토굴암자 안내

- 주소 : 경북영천시 화남면 온천길 114 -3 무영사
- 대지 : 85, 법당 : 16, 요사 : 12
- 금액 : 4300만원

이곳은 소쿠리터라고합니다. 가장중심의자리에있어서 안정적 기운이맑고 편안한터입니다. 이도량은 비구니스님이거주하시면 잘어울릴것입니다.

010-8987-4570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주 변 : 상가거리, 위치 좋음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유동인구 많음)
- 규 모 : 30평(3층) – 삼존불, 원불, 영단, 신중단
- 보증금 : 5백만원(월세 6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10-6416-066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20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일정 : 5월16일~5월25일

▶ 동참금 : 34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5일(5일간)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천년고찰 광우사)-인천

▶ 동참금 : 160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네팔 카트만두 순례

출발일 : 5월17일~24일(6박8일)

▶ 동참금 : 439만원

중앙아시아 4개국 완전일주 13일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일정 : 6월03일~6월15일(11박13일)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순례 7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 등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6월28일~7월04일(7일간)

▶ 동참금 : 299만원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성스러운 영감의 근원을 찾아서 순례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6월07일~6월22일(16일간)

▶ 동참금 : 560만원



카일라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22호 | 16 | 전면광고

어진 이는 진리를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제2기 수강생 모집공고

1.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참여가능)
- 불교신자 및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2.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경전반 :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제반의식
- 의식반 :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 등

3. 교육일정
- 경전반 : 2025년 3월 17일(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 의식반 : 2025년 3월 11일(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4. 교육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 태고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5.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교무국장 법륜스님(010-9233-8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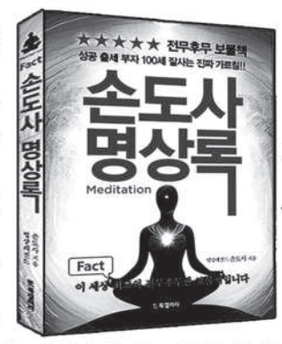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교 의식 학인 모집

- 영남 범음 범패
- 49재 · 천도재 · 사시불공 등
- 북 · 징 · 경쇠 · 요령 · 목탁
- 매주 화요일 · 금요일 3시~5시
- 일반불자 수강가능

조은사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스님을 구합니다

오래 계시면서 조용한 절 찾으시는 스님 모십니다.
대구 동구 백안삼거리 인근 사찰

010-9363-2292
010-3805-2778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태아령 유산낙태, 남 · 여 구별법(예방법), 산소 무덤 물찬곳, 송사 재판, 암, 자궁암, 유방암
- 이혼수, 부도 • 배우자가 일찍 죽는 상 • 귀신 붙은 상
- 자살상, 중풍, 뇌졸중 상, 자식이 일찍 죽는 상 • 조상기도특수비법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구성학
- 스님, 법사, 무당, 일반인, 특별책임 개인지도

상담문의 010-4014-8822 작명, 아기이름, 개명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개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한국불교어산종 종도모집 안내

한국불교어산종은 영남범패 종단으로써 남성적이고 웅건함을 지니고 용맹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기질과도 닮은 영남범패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 시켜갈 수 있도록 함께할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범패 교육원 수강생 모집

의식 및 사물
(쉽게 배울 수 있는 악보로 수업)

총무원장 010-2665-9108
어산원장 010-3156-2211

사)한국불교어산종 총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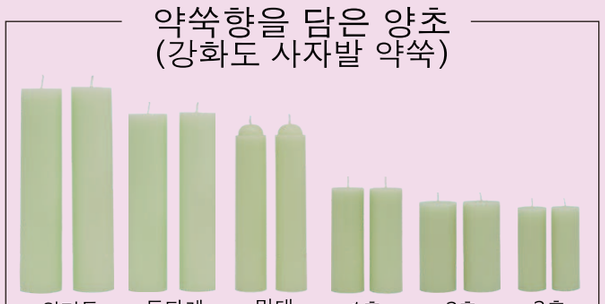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침향향을 담은 양초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PC 팜 원통초



연꽃향을 담은 양초



밀랍향을 담은 양초



밀납향을 담은 초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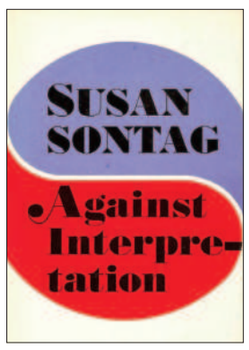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⑤ 대각전(2) – 〈화엄경〉 연화장세계

불교, 21세기 우리에게 꼭 맞는 종교



수전 손택의 저서 'Against_ Interpretation(해석에 반대한다, 1966)' 표지.

저번 회에 이어 동국대학교 대각전의 연화장세계에 머물러 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나는 대각전에 봉안된 만 분의 부처님이 서로를 장엄하는 세계, 즉 부처님이 부처님을 장엄하는 불화엄의 세계를 〈화엄경〉의 연화장세계라고 하였고 이를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시는 경계인 유불여불의 경지라고 하였다. 다만 이런 부처님과 부처님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위대해서 그 위가 없는 분, 그렇기에 한 세계에 두 분이 계실 수 없는 부처님이 한 공간 안에서 서로를 장엄하시는 이중적 상태라고 하였고, 이를 이해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말하다 멈추게 되었다.

이어서 말하자면 나는 이해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이해는 머리 속의 소화작용이다. 머리 속에서 소화가 다 되어버린 철학과 내용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혹자는 소화를 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이 되어 자기를 풍족하게 만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만, 요즘은 비만이 질병이라 하는 시대이다. 자아의 살을 채우는 것도 정신적 비만이다. 꼭 무아를 말하는 불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자아의 살을 채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종교인이라면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우리는 부처님을 그들은 신을 채우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언젠가 얘기한 행지의 일이다.

물론 이해는 필요하다. 도대체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읽어가는 일이 이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 나아가 내가 대각전의 만불을 보고 이를 〈화엄경〉의 연화장세계로 이미지를 중첩시켜 가는 것도 사실은 이해의 한 갈래이다. 니체는 "사실은 없다, 해석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고, 이는 내가 종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증이 되는 것 같다. 물론 모든 지적작용을 이해라고 광범위하게 부를 때, 나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거부감을 가지는 이해는 바로 해석학이다. 이해를 다른 말로 하면 해석이다. 해석을 다루는 학문인 해석학 자체가 이해의 과학이라고 불리운다. 내가 계속 종교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해가 바로 이것이다.

20세기 중후반 미국의 예술평론에서 여왕이라고 불린 수전 손택(그녀의 부고기사 명이 '여왕이 영면하다'였다)은 해석은 번역작업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술을 겨냥했을 때, 해석은 작품 전체에서 일련의 요소(X, Y, Z 따위의 요소)를 뽑아내는 것을 뜻한다. 해석의 의무는 일종의 번역작업이다. 해석자는 말한다. 보시오, X가 정말 A인 것 – 혹은, 사실상 A를 뜻한다는 것 – 을 모른단 말이오? Y가 사실은 B요, Z가 실은 C라는 것을?"(〈해석에 반대한다〉, 22) 여기서 원래 예술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X, Y, Z의 요소들은 X로서 Y가 진행되고 X와 Y로서 Z가 완결되는 작품 안에서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작품에 나타나지도 않은 A, B, C를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야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수전 손택.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불교는 신화 등에 현대적 해석 필요 없어
내면서 비롯된 고통의 원인과 해방에 집중
구원 목적 초월적 존재 아닌 현실서 찾아

수전 손택의 말을 더 빌려보자. "도대체 어떤 상황이 원문의 변형이라는 이 별스러운 짓을 부추기고 있는가? 이에 답이 될 자료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해석은 과학적 계몽주의의 '사실주의적' 세계관이 신화가 지녔던 권능과 신화에 대한 믿음을 깨부숴버린 고대의 후기 고전주의 문화에서 처음 나타난다. 신화 이후 시대의 의식에 이 의문 – 종교적 상징의 고상함에 대한 의문- 이 들어서자, 더 이상 옛 형식 그대로 옛 텍스트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옛 텍스트를 '현대적' 요구에 일치시키기 위해 해석이 필요하게 됐다."(같은 책, 22-3)

즉 문제는 창작의 시점과 감상의 시점이 갖는 시간적 격차이다. 옛날 마을 어귀에 지아비가 죽으면 따라서 죽은 아내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 세웠다는 열녀문은 세울 당시에는 아주 숭고한 의미를 가진 조형물이었겠지만,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 된다. 수전 손택은 이런 예시로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인 중세 기독교 교부(철학자)들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야만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련의 사건들, 하지만 서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를 그들의 현재였던 중세의 기독교 윤리에 맞추어 갔음을 들었다. 이를 그리스 예술이라는 X, Y, Z에 기독교 윤리라는 A, B, C를 가져다 해석한 예시가 될 것이다. 아마 그리고 수전 손택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해석된 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비윤리와 야만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구약이었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불교는 이런 신화나 비윤리적 사건, 야만적인 일상에 대해서 번거로이 현대에 맞추어 해석할 필요는 없는 최대의 장점이 있다. 부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던 건 석가족의 위대함과 정복의 역사도 아니고, 신들의 기상천외한 드라마도 아니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과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에 이르는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이는 거의 전적으로 자신 내면의 일로만 이루어졌다. 심지어 형이상학적 체계에 있어서도 이를 구축하는 초월적 존재를 전혀 상정하지 않으셨다. 서구 불교학의 여명을 연 후라우발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영혼 혹은 최고 존재를 고려하는 일 없이, 모든 심리적 과정을 오직 심리적 요소로 돌렸다."(〈불교학리뷰 8〉, 367) 이런 면에서 불교는 처음부터 형이상학적 체계 없이 세계를 깔끔하게 설명하고 또 구원의 목적을 신비가 아니라 현실에서 찾는 종교로 성립되었다. 불교는 처음부터 현대적 요구를 가진 21세기의 우리에게 꼭 맞는 종교인 것이다. 즉 현대적 요구에 의해 해석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현대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21세기의 사람에게 맞춤으로 만들어진 듯한 불교에 있어서 현대인이 '해석'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버렸다. 바로 대승의 영역이다. 초기불교와 아비달마불교의 원리적 세계에서 부처님은 한 우주에 한 분만 계셔야 했지만, 대승에서는 원리를 무시한 채 수천 수만분의 붓다가 서로를 중첩하며 이 우주를 광명으로 채우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법계에 가득찬 옥호광을 보고 있는가? 이 보이지 않는 광명에 대해서 아직 말을 다하지 못했음으로 우리는 아직 대각전에 머물러야 한다. 〈동국대 박사〉

보살심으로 모은 정재들
승가와 빈자에 보시하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⑩ 삼계교 무진장행

삼계교가 탄압을 받게 된 원인 중 하나인 무진장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도사의 무진장원의 기록을 먼저 보십시오.

"삼계사(師) 신의(信義)는 화도사에 무진장을 두고, 정관(貞觀) 연후에는 전금과 금옥을 보시하여 그 쌓임이 측량할 수 없었으며, 항시 승려의 감시를 통해 3등분으로 나누었다. 1은 천하 가람승과 수리에 공양하고, 1은 천하의 굶주린 이의 비전의 고통에 보시함이요, 1은 무애(無碍)의 공양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진장시)를 권화함이다."

이렇게 제1분(分)은 불물(佛物;가람승과 사찰수리)에, 또 1분은 비전물(悲田物)로서 일체의 빈궁자에게 베풀며, 또 1분은 비축 분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불타 당시의 재산물의 분배개념, 즉 4등분하여 1은 식생활에, 또 1은 저축 분에, 다시 1은 투자 분에, 나머지 1은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라는 개념과 흡사합니다.

화도사의 무진장원의 운영 특히 대여의 방법이, 인도에서 엄중히 대출을 금지했던 내용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도사의 무진장원에서의 방법은 대여는 매우 간단하며, 게다가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기한이 되면 반환하는, 즉 채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선사업이었기 때문에 서민계층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금융기관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삼계교의 무진장은 대승불교가 일어남에 따라, 자리이타행이 동반되며, 복전(福田)사상에 의한 대자비행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진장 사상의 전파를 신라의 원광 법사가 도입해 재창출했다는 점도 눈길이 갑니다. 삼계교의 무진장원 창립설은 2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신행 선사(540~594, 장안 입성은 589년)의 설로 봅니다. 신라 원광 법사가 장안(長安)에 들어가(589년, 삼계교 신행과 같은 해) 신행의 무진장행의 작법들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원광 법사가 입수한 것은 무진장원의 다른 이름인, '점찰보(點察寶)'였습니다. '점찰보'라는 것은, 〈점찰선악업보경〉에서 창안된 '보(寶)'라는 경제적 개념과 법회성격의 '점찰행법'으로 나뉘어져서 〈삼국유사〉의 제4권 '원광서학조'에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 중기의 〈점찰선악업보경〉의 신봉자였으며, 철저하게 참회법을 수행한 진표 율사는 바로 이 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법으로 크나큰 교화의 북을 울려 퍼지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찰선악업보경〉의 새로운 '점찰참회법'은, 이후 신라에서 고려로 들어와서도 성행·발전해 금산사, 법주사, 동화사 등의 거찰(巨刹)에서 성행했습니다.

〈점찰선악업보경〉은 '지장삼부경' 중 하나이며, 이러한 '지장삼부경'은 모두 삼계교에서 각별하게 주장한 경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장십륜경〉은 삼계교에서, 특별하게 많이 애독하며 실천한 경전으로, 삼계교를 '지장교'라고도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신행유문〉에 보이는 무진장 법행(法行)에서는, 삼계교가 주창한 보불보법을 기반합니다. 따라서 삼계교의 중요 덕목인 '보시'에 있어서도 제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독행(獨行) 보시'로는 공덕이 적으며, 공동으로 할 때 보법(普法)의 행인 보행(普行)의 진실한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계교에서는 '보시'를 중요시하는데, 여기서 보시란 보살의 무상도(無上道), 즉 자비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시를 상수로 하는 육바라밀로 해서 중생제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욕의 락(樂)과 보화(寶貨)등 모든 재리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이름 나기를 바라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 이런 것들을 재도하고자 맹세한다(〈화엄경〉 현수보살품)"는 것이 보살의 초발심이며, 공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신행의 삼계교도가 이것을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실현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무진장원에 모여진 재물은 대승법계행(大乘法界行)으로서 삼보에 공양하는데, 그것은 빈궁인을 구제하는 보살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고, 상락아정(常樂我淨)행 이외의 것으로 변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❺ 경칩 _ 용인 길을 걷다



▶한줄 요약
〈예기〉 '월령' 편은 "만물은 우레 소리를 듣고 나오는데, 우레는 곧 천둥이다. 잠자던 동물들이 놀라서 기어 나온다"는 말로 경칩을 풀어 전한다. 경칩 무렵 봄비가 내리는데, 이때 처음 천둥이 치면 땅 속에 있던 벌레를 비롯한 만물이 따 밖으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경칩의 원래 이름은 '열 계(啓)'를 쓴 '계칩(啓蟄)'이라 불리기도 했다.

범종 소리, 새 봄 뭇 생명 일깨울 '법음'
〈法音〉

저 멀리 산 높은 곳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순식간에 적막했던 산길과 숲을 채우고,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거대한 소리의 물결.

하늘에서 땅으로, 사람으로, 이제 막 돋아나는 저 새잎까지 공명하며 흩어지는 청아한 소리.

어느새 숲은 다시 고요해지지만, 종소리가 퍼지기 전과 후의 세상은 다르다. 이제 천둥 같은 저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을 향해 떠나야 할 때. 다시, 빛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다시 일어날 시간, 경칩

3월이다.

한 해의 세 번째 달에 접어들면 24절기의 세 번째 절기도 함께 시작된다. 바야흐로 천둥소리에 잠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

〈예기(禮記)〉 '월령(月令)' 편은 "만물은 우레 소리를 듣고 나오는데, 우레는 곧 천둥이다. (중략) 잠자던 동물들이 놀라서 기어 나온다"는 말로 경칩을 풀어 전한다.

경칩 무렵 봄비가 내리는데, 이때 처음 천둥이 치면서 땅속에 있던 벌레를 비롯한 만물이 땅 밖으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중국 후한 시대에 쓰인 '한서'에 따르면 경칩의 원래 이름은 '열 계(啓)'자를 쓴 '계칩(啓蟄)'이라 불리기도 했다.

전국 어디서나 이즈음에는 자그마한 새싹이 고개를 들이밀고, 녹은 얼음물은 흙을 보드랍게 만든다. 옛사람들은 경칩 때 흙일을 하면 탈이 안 난다는 속설과 함께, 이날 흙을 바르면 빈대가 없다고 하여 흙벽을 바르거나 담장을 쌓았다.

또 새싹의 성장 정도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그해 작황을 점치는 것. 따뜻한 기운에 깨어난 동식물들을 죽이지 않도록 땅에 불을 놓는 화전 행위에 임금이 직접 금지령을 내린 것도 이 절기의 풍경이다.

어디 그뿐일까. 하늘도, 땅도 들썩들썩 일어나는 시기, 잠자는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꼭 천둥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과거 경칩에는 젊은 남녀가 은행 씨앗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은행이 암·수 나무로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함께 열매를 맺고, 겉은 쓰고 단단해도 한번 땅에 자리 잡으면 천년을 가기 때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들은 해가 저물면 동네 은행나무를 돌며 애틋한 시간을 보냈다니, 이보다 달콤한 봄의 풍정이 또 있을까.

청나라 우이(尤怡)의 〈잡감(雜感)〉에는 "봄이 오니 양기가 움직이고, 경뢰가 북처럼 울린다. 개인 강물에는 아침 빛이 가득한데, 풀과 나무는 새로 내린 비에 머리를 감았다"고 경칩을 이야기했다. 여름의 그것과 달리 소리가 작아 춘뢰 혹은 경뢰라 부르는 봄의 천둥.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날 여린 생명을 위해 천둥도 제 목소리를 줄였는지 모를 일. 풀도 나무도, 사람의 마음도. 이 계절은 이다지도 부드럽게 뭇 생명을 흔든다.

용덕사를 찾아서

용인시 이동읍. 경기도 외곽의 호젓한 마을인 이곳에는 용덕 저수지와 묵리계곡, 길게 흐르는 용덕사천까지 도심에선 쉬이 볼 수 없는 다양한 물길이 제법 이어진다. 마침 길을 나선 것은 3월의 첫날. 오래전 이 땅의 독립을 기원하며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진 날이다. 새봄을 기다리던 그 날의 간절함을 되새기며 느린 걸음으로 땅을 밟는다.

자박자박 물길을 따라 국도변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표지판 하나.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말사인 '용덕사'를 알리는 표식이다. 오래전부터 이곳을 알았던 이가 아니라면 쉬이 지나치기 쉬운, 왜인지 산속 어딘가에 살며시 감춰둔 듯한 작은 사찰. 하지만 이곳을 한 번이라도 찾는다면 용덕사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이름이 될 것이다.

봄의 천둥…뭇생명 흔드는 계절
산속에 감춰둔 듯한 용덕사에서
산을 지키는 주인들과 마주하다

용덕사는 신라 문성왕 대에 염거화상이 창건하고 도선국사가 3층 석탑과 철인(鐵人) 3구를 조성했다는 천년 고찰. 용덕 저수지를 비롯해 이 근방 일대를 잇는 용덕사천, 그리고 용덕사가 자리한 산의 지명 또한 성륜산(聖輪山)임을 미루어 보아 과거 이 지역에서 용덕사의 불교적 상징성과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비록 과거의 세와 다르다 해도, 용덕사는 여전히 경기 일대의 사찰 중에서도 그 사적의 중요성과 의미가 남다르다.

신비로운 설화와 고유한 문화재, 3.1운동과 의병항쟁의 거점이었던 호국사찰의 의미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옛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저 가파른 산등성이의 고적한 도량이 그렇다.

용이 머물던 사찰

오래전 용덕사의 처음은 '굴암사(窟巖寺)'로 시작한다. 이는 이 산에 굴암, 용덕사의 창건 설화로 알려진 용굴 설화의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용덕사의 숨겨진 백미는 깊은 숲 너머, 산길을 오를 때 다시 드러난다.


미륵전 문이 열리는 순간, 단아하고도 서늘한 석불 자태에 압도된다.



용굴 앞 누각 위에서 울리는 범종 소리가 산을 가득 메운다.

신라 시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에게 여의주를 소원했던 한 처녀와 그녀에게 여의주를 주려다가 목숨을 잃은 용의 설화가 바로 그것. 이후 한 노스님이 용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용덕사라는 이름으로 절을 짓고, 지금도 용이 머물던 그 굴암은 이 산을 지킨다는 이야기다.

용이 머물던 산중인 만큼 길은 녹록하지 않다. 하지만 일주문을 넘어 꽤 가파른 길을 오르고 나면, 산의 경사를 따라 자리한 용덕사의 대웅보전, 미륵전, 범종각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대웅보전 앞으로는 오래된 두 개의 석탑이, 뒤로는 부처님 진신 사리탑이 이 천년고찰의 긴 역사를 말없이 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곁의 미륵전에는 신라 시대의 석조여래입상과 나한상이 모셔져 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단아하고도 서늘한 석불의 자태에 압도되고 만다. 반면 그 뒤에 자리한 오십여 개 나한상들은 금방이라도 장난을 칠 것처럼 해학적인 표정으로 낯선 이를 반겨주는 것이다. 하지만 용덕사의 숨겨진 백미는 역시 저 깊은 숲 너머, 다시 산길을 오를 때 다시 드러난다.

멈추지 않는 종소리

용덕사 대웅보전과 미륵전 사이로 난 작은 숲길. 이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누구라도 잠시 각오를 해야 한다. 거리는 그리 멀지 않지만, 꽤 가파른 돌길을 올라야 하기 때문.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뻐근해지는 찰나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고고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현실적일 만큼 청아한 소리가 금세 온 산을 메우는 순간,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니 일대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눈과 발이 닿는 그 모든 곳마다 의병장 옥여임경재와 의병들이 일본군 토벌대와 치열한 교전을 치른 곳. 그리고 용덕사의 스님들이 3.1운동의 시작과 함께 용인 최초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는 현장이다. 걷는 것조차 힘든 산 고개를 넘나들며 새 세상을 향해 싸운 처연함, 잠시 가빠졌던 숨도 부끄러움에 가만히 가라앉는다.

마침내 산 중턱에 오르면 세 갈래로 나누어진 가파른 계단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위로 당당히 선 세 개의 전각. 각각 중앙은 극락보전, 우측은 삼성각, 그리고 좌측에는 용굴(관음누각)이다. 마치 숲속에 감춰진 신비로운 궁전이 모습을 드러내듯, 이 산을 지키는 주인들과 마주한 것이다.

문득 다시 울려 퍼지는 종소리. 저 멀리 용굴 앞 누각 위 누군가가 울리는 범종 소리가 산을 가득 메운다. 오래전 저 기암절벽의 작은 굴에서 잠들었던 용. 그는 영생을 향한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누군가의 소원을 위해 제 목숨 같은 여의주를 전해주었다고 했다.

이제는 목숨을 다하고 사라진 의병도, 이 깊은 굴에서 불법을 전한 옛 선사들도 영원한 잠에든 시간. 하지만 범종의 울림은 천지 만물을 어둠 속에서 깨우는 법음이라고 하지 않던가.

긴긴 겨울밤을 지나 잠에서 깨어날 뭇 생명도, 새로운 세상을 바라며 눈감은 이들도 다시 저 종소리와 함께 깨어날 것이다. 다가올 새봄, 빛으로 향할 저 우레 소리와 함께.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폐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인간까지 진화해서 올라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그림 · 최주현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이니까요. 여러분은 놓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성인들이 "우주의 근본과 태양의 근본, 천지의 근본도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 너무나 절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놓고 가기 어렵다는 거, 놓는다는 그 자체가 지금 말로 하자면은 보임(保任)을 하고 한데 뭉친다는 뜻입니다. 뭉쳐 놓는다. 한군데로 나고, 한군데로 든다는 그것이 바로 놓는 공부며, 모든 업을 무너뜨리는 공부며, 항복을 받는 공부며, 나를 깨닫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고, 나로부터 나오는 거를, 나로부터 들고 나는 거를 누구의 원망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남한테 따귀를 맞더라도 바로 내 주인공에 의해서 그쪽을 움죽거리게 해서 나의 따귀를 때리려니 생각을 하고 오히려 스승으로 아는 것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공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말을 해 놓고 넘어가야겠기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전체는 지수화풍이 근본이 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서로 주고받고 공식하는 것도, 또는 질량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살 수 있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그 원천지는 바로 지수화풍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우주가 우리의 지수화풍으로 된 집이라고 해도 되고, 혹성을 집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몸뚱이를 집이라고 해도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집입니다. 그 집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움죽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쳇말로 하자면 원자와 전자 양 개체가, 양자가 한데 합쳐져서 중성자가 됩니다. 그 중성자는 바로 우리가 법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왕, 자유인, 권도(權道)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도법을, 중용으로써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는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삼십 년이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아신다면, 양자가 한데 합쳐지면 중성자가 된다.

그래서 양면을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맡겨 놔라. 아무리 넣어도 두드러지는 법도 없고, 아무리 내놔도 줄어드는 법이 없다. 그런데 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양자가 다 중성자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두 전체가, 태양계도 그렇고 달 세계도 그렇고, 혹성이든지 은하계든지 다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상세히 알아라 이겁니다. 허튼소리 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것을 그저 남의 소리나 듣고서 한마디 내놓는다면 그것은 한데 떨어지기가 쉽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사십구 년을 설하여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거름으로 삼아서 그 속을 빼 볼 수 있고, 내 속과 그 속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 놓아야 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내 주인공밖에 없다.'라고 돌려놓고 또 좋은 것은 '주인공, 감사하구나.'라고 놓아야 됩니다. 남한테 일러 줄 때 그 말만 일러 주면 되는 거지 더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몸을 혹성이라고 한다면, 또 집이라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집 안에 중생들이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천차만별로 자기가 한 것만치 인연이 돼서 한데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 하나만 없애면 전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고집멸도의 사제법에 고 하나만 없앤다면, 그것을 녹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놓고 돌아간다면 다 없어지는 거죠. 집도 멸도 도도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이 나오실 때 물주머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과거 수십억 년 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없이 알리기 위한 선언입니다. 물에도 지수화풍이라는 근원에 의해 바로 생명들이 살고 있고 지수화풍이라는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거고 흙이나 산도 그렇고 모두가, 안개도 이 물에서 올라가서 전부 우주간 법계로 통신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물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것들도 전부 올라갑니다. 흙과 물과 같이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일 년에 세 번씩,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물이 세 번씩이나 갈라졌다 오므라졌다 하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것이 화해서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면 안개는 우주간 법계의 통신망이 되는가 하면 우리 생명들에게도 전부, 즉 말하자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모든 것을 충만히 차원대로 연락이 통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수화풍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전력, 광력, 자력이 충분히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은 구름대로 이 세상에 냉기가 돌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원력으로 화하게 되고, 뜨겁게 할 수 있는 원력으로도 화하게 되고, 또는 멸할 수도 있고 승화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능력들을 그 큰 구름 덩어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구름 덩어리뿐만 아니라 조그만 것도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허무하다고 그러지만 그 물질이 아니라면 그러한 진화력과 그런 통신력과 그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도 많아서 하나도 가질 게 없어야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버릴 게 없어야 하나도 가질 게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발이다. 아니 딛는 데가 없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발이 정말 평평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아니 딛는 데가 없고 손이 아니 닿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 아님이 없느니라." 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태양에도 해당이 되고 은하계의 별성에도 해당이 되고 달 세계에도 해당이 되고 온갖 혹성에도 다 해당이 되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이 되고 벌레에도 해당이 되고 물에도 해당이 되고 어디고,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중성자로 인해서 비서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즉 말하자면 원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서 중성자가 되면 중성자라는 그 비서는 항상 조절을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유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운전수가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면 그 기름은 자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 도리 공부 안 한다면 앞에 닥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

☞ 19면에서 계속

동적으로, 아무 고정관념이 없이 술술술술, 24시간 살아나가는 데도 자꾸자꾸 화해서 찰나찰나 이렇게 살죠? 내가 항상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그거는.

물론 은하계에 속해 있는 태양도 있는가 하면 태양의 도움을 받고 있는 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아는 것을 왜 얘기하나 그러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인간의 마음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또 그보다 더 묘하고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 모든 생명들의 이 껍데기는, 집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껍데긴 짧거나 길거나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도 먹고 먹히고, 쫓고 쫓기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우주 세계에도 별성과 별성이 서로 쫓고 쫓기고, 먹고 먹히고 또 혹성들도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으면 작은 것대로 차원에 따라서 먹히고 또는 먹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의 문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고, 이 우주의 근본의 원리도 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중성자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내서 여러분이나 과학자들한테 알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보여야 책정을 해서 연구를 할 텐데 보이지 않습니다, 중성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때에 조그마한 것들이 잡아먹힐는지, 어느 때에 폭발이 될지, 우리 사는 데에도 그렇듯이 그런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가,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공부를 아니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평발이요, 평손이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상세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은하계에서도 물론 별이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빛깔도 엷고 붉고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차원이 있듯이 그것도 차원에 따라서 강렬하게 빛을 내는 것이 있고 희미하게 빛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별이 차원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것은 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빛이 없어지면, 늙은 것이 돼서 껍데기를 세 껍데기만 벗으면 다시 별성이 강렬해지고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별성 하나가 여섯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아홉 개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바로 구십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별성은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은하계의 별성만이 그런 게 아니라 태양도 강렬하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크게 승화를 시킬 수 있는가 하면 미신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자기'입니다. 지금 상반되는 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계에서도 그렇게, 즉 말하자면 한 원자가, 즉 중성자에 관한 건이 있으면 이 원점이 그걸 조절을 해서 비서 노릇을 잘합니다. 이건 인간과 같습니다. 모두가 같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 전체를 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다면 또 구름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구름, 가스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수만 가지, 지금 과학적으로 이름을 따지고 본다면 수소니 탄소니 이산화탄소니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름이 다르더라도. 우리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눈, 귀, 코 이름이 다릅니다. 입도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섯 가지가 다 포함돼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조금씩은 다르지요. 듣는 거 다르고, 보는 거 다르고, 냄새 맡는 거 다르고, 말하고 맛을 아는 거 다르지만 그러나 한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마음을 조절한다면 그거는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역할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도리를 몰라서 조절을 못 한다면 수십억 년 후에는 어떨지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나갈지 이런 문제들이 빨리 닥칠지 늦게 닥칠지는 아무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죽느냐? 나이가 들어서 죽느냐, 젊어서 죽느냐 책정할 수 없듯이. 또 그것도 그거지마는 크게 팽창을 하느냐 작게 축소가 되느냐는 것도 그 가스의 탓이요, 중성자의 탓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모든 것, 즉 구름, 가스가 천체의 활력이 크다는 거, 안개와 구름이 활력이 크다는 거. 즉 말하자면 은하계에서도 지금 시쳇말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물과 같은 안개라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걸 수소라고 이름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가스가 한 가지 두 가지만 아니라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아홉 가지까지 화해서 진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그 태양의 뜨거운 걸 조절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화풍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나왔고, 지수화풍이 길러 주기도 하고…, 생명을 낳게 해 가지고 길러 주기도 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는 건 전체 지수화풍의 역할입니다.

> 잘되는 걸 취하다 보면 어딘가 잘못되는 수가 있고
> 잘못되는 걸로 취하다 보면 잘되는 수도 있다.
> 양면을 다 놔야만이 참나를 발견한다.

여러분도 지수화풍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것도 지수화풍입니다. 바람과 더불어 전체가 화해서 공기가 되는데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각각 따져 놓고 본다면 물이 없어도 우린 살 수가 없고 불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안에도 있지만 바깥에도 있어. 지금 안에도 공장장이 많고 공장이 많어. 위 공장이니 장 공장이니 방광 공장이니 췌장 공장이니 이자 공장이니 하는 그 공장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 가지고 나가는 회장이, 선장이 바로 운전수나 마찬가집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를 이끌어 가는 운전수 말입니다.

지금 구름이나 가스나 물이나 올려 주면 내려오고 내려 주면 올라가면서 그렇게 묘법이 수없이 천만 가지로 나고, 내려올 때에 천만 가지로 그렇게 통신이 되고, 사람들을 길러 주고 생명을 낳게 합니다. 그 차원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묘한 법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고장마다 닿지 않는 데가 없고, 딛지 않는 데가 없고, 내 몸 아닌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체험을 해 보니까 부처님 말씀의 뜻이 내가 태양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저기를 육안으로 봐서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이 곧 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멸하거나 터지지 않게 심안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비유하자면 아주 큰 하마 같은 입이 조그마한 혹성과 별들을 집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모두가 태양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태양이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은하계가 될 수 있고 그 천체 한마음이 내 마음의 근본이 될 수가 있고, 내 근본이 바로 저 은하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아님이 없는 것이요,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둘이 아니니라. 그래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양자가 합쳐진다면 바로 그게 주장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불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불성은 기다랗게 작대기도 됐다가, 뚱그렇게도 됐다가, 아주 유연하게 대가리만 탁 들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재권, 자재권을 가졌기 때문에 삼천대천 세계의 어느 거든지 내가 아니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꽃 한 송이, 저런 나무 한 그루, 어떠한 식물이나 동물이나, 여러 가지로 말해서 일체 생물이 다 될 수 있는 거. 그러니 살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세상에도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이 유, 무를 한데 합쳐서 한자리라 이거야, 한자리. 그래서 바리때의 공양을 한 그릇을 잡숫고 앉으셨다 이거지.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도리를 공부를 안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 하나만 없애면 된다 이런 것은 고 하나만 없애면 전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천상 인간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거늘 선으로 나간다, 악으로 나간다, 이건 잘못된 거고 저건 잘된 거다 하는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이 공부 못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그른 일이다, 이렇게 배우신다면 이 공부는 영 못 합니다. 자유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른 것으로만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잘되는 걸로만 끝이 나는 것도 아니라, 잘되는 걸 취하다 보면 어딘가가 잘못되는 수가 있고, 잘못되는 걸로 취하다 보면 잘되는 수도 있어. 양면을 다 놔야만이, 양 개체를 다 놔야만이 참나를 발견한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업식으로써 뭉쳐진 인연 때문에 눈이 안 보여. 이 의식만 가지고서 죽어서 돌아다니다가 새 둥우리로 안 들어가나, 개구리 둥우리로 안 들어가나, 뱀 소굴로 안 들어가나, 소로 안 들어가나. 보질 못하니깐 짝짓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러는지 새가 그러는지 몰라. 뱀이 그러는지 짐승이 그러는지 그걸 분간을 못 하니까 그냥 그리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한 철만 나고 달리 화한다면 좋은데 거기에 물이 들어서, 의식이 물질로만 보고 물질로 사는 법만 알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고, 쫓아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 그 새끼로 태어나서 어미가 되고 어미로 태어나서 또 그 새끼가 되고, 벗어날 수가 없으니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르면 죽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무엇이 인간으로 그 애를 쓰고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이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그건 헛겁니다, 헛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갖고 나온 인간이, 수십억 년을 거쳐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진화를 해서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응? 세상에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도리를 알고서야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3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⑤ 삼매의 현상들(1)_무량광

몸과 마음 청정해지면 청정한 세상으로…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내가 있다' 또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 어떤 슬픔이건 어떤 분노이건 어떤 아픔이건 간에, 그것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내'가 있다. '내가 있다'고 착각하기에 모든 것은 비롯된다. 즉, 모든 생명에는 자의식(개체로서의 자기 인식)이 디폴트(default: 기본 설정) 값으로 깔려 있다. 이런 착각을 불교에서는 어리석음 또는 멍청함이라고 하여 '치(痴: 현상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병든 마음, 사리분별을 못하는 번뇌)'라고 한다.

'나'라는 덩어리, 산산이 분해되다

'내가 있다〔치〕'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는 갈애〔탐貪〕가 생기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진瞋〕가 생긴다. '치-탐-진'으로 반응하는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다. '나'라는 것의 발원지인 이것을 유신견(有身見: '내가 있다'라는 인식)이라 한다. 또는 '근원적 어둠'이라고 하여 '근본 무명'이라고도 한다. 과연 근본 무명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것과 저것이 만나) 홀연히 일어난 것이 스스로를 돌아보매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구절을 〈대승기신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나의 세상·나의 인생·나의 고통·나의 윤회가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에서 비롯된 허상이라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유식(唯識) 사상이 이해가 간다. '유식'이란 '오직 식(識: 마음)만 있다'라는 뜻으로 일체 제법에는 오로지 마음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든 현상의 원리를 미립자에서 찾는 양자역학에서도 '의식(마음)에 따라 미립자가 생성되고 작용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원리이다. 즉, 마음이 먼저이고 형상이 나중이다. '착각(근본 무명)'이 먼저이고 '나'가 나중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매 '덩어리'진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근본 무명(병든 마음, 오염된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반야의 마음(건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이 있다. 그 실체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이것과 저것이 만나 연기(緣起)'하는 모습이다.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생멸生滅, 또는 연기緣起-연생緣生-연멸緣滅〕을 무상하게 반복하고 있다. 자칫 덩어리(오온: 몸과 마음, 느낌, 기억과 분별, 행위, 인식)로 다가와 나를 존재하게 하고 또 뒤흔들었던 그것의 실체. 그것은 '다양한 요소들의 이합집산'일 뿐이었다. 무상하게 파도치는 이합집산이라는 현실(또는 실상實相)을 알게 되면, '나'라는 감옥에서 해방된다.



사마타 수행 중에 만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빛, 무량광. ©강소연

'나' 라는 근본무명 깨야
오온의 실체 알면 '나' 해방

'나'라는 고질적인 착각(근본 무명)을 깨어버리는 방법을 발견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 방법은 사마타와 위빠사나이다. 사마타 수행으로 '나'라는 '덩어리'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고, 위빠사나 수행으로 그 '덩어리(나)'를 산산이 분해한다. 그러면… , 남는 것은 없다. '무아(無我)'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어마어마한 빛 '무량광'의 출현

지난 연재에서 사마타 수행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몸의 정화' 단계까지 기술했다. 하나의 대상(화두와 염불, 들숨날숨, 초기불교의 40가지 사마타 주제 등)에 오롯하게 의식을 집중하면, 내게 붙어있던 의식이 그 대상으로 전이되어 ('나'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난다. 6근과 6경의 만남으로 유발되는 6식(전5식+제6식)의 끊임없는 파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음의 고요를 획득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의 작용도 고요해진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몸의 정화가 일어난다. 몸과 마음이 일순 청정해지면, 청정한 세상〔극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 그때 만나게 되는 풍경 중 하나가 찬란한 무량광(無量光, 한량없는 빛으로 아미타로 번역된다)이다.

여기까지 사마타의 과정을 정리하면 '하나의 대상에 계속 집중하면 희뿌연 구름과 같은 니밋따가 나타난다 → (계속 집중) 대상이 투명해진다 → (계속 집중) 강렬한 빛이 발생한다 → (계속 집중) 대상과 하나가 된다'이다. 이때 발생한 빛은 살아생전 보지 못했던 희한한 빛이다. 투명한 빛은 발광(發光)하지 않는다. 지상의 모든 빛은 피사체에 부딪혀 반사하는 발광의 형태를 띤다. 하지만, 이 오묘한 빛은 차원이 다르다. 월등한 크기와 청정도(맑음의 정도)를 자랑한다. 이러한 대상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몸이 없다'고 느낀다. 오직 '무량광'만이 존재한다. 이것과 하나 된 삼매에서 나올 때는 (의식이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 몸이 뒤로 튕겨 나뒹구는 현상이 일어난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⑤ 숙취해소제, 정답이 있나요?

숙취 해소에 왕도는 없다

"약사님, 술약주세요~"

"음주 전에 드시는 제품이 있구요, 음주 후 숙취에 드시는 제품이 있어요. 어떤 제품이 필요하세요?"

"아니, 그냥 가레오랑 헤포스랑 주세요."

"아, 그게 평소에 잘 맞으시던가요?"

"유튜브에서 그게 제일 좋다고 하던데요?"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약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인사이동이 잦고 동장군이 한 발짝 물러나는 3월 즈음이 되면, 약국에서는 잦아진 술자리로 인해 숙취 관련 제품이 인기다. 요즘은 유튜브나 SNS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숙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약국을 찾는 손님이 많다.

곧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술 냄새를 풍기며 쓰린 위를 부여잡고 숙취해소제를 찾는 손님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제 즐거웠을 술자리가 내심 부럽기도 하다. 도대체 얼마나 즐거웠길래 이기지 못할 술을 저렇게 마셨을까.

숙취에 만병통치약이란 없다. 두, 세 가지 제품의 조합으로 숙취에 최고라고 광고하는 영상들을 보고 있자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다.

숙취는 굉장히 다양하게 흉폭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슬며시 스며든다. 그리고 그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머리가 아픈 사람, 속이 불편하여 구토하는 사람, 설사 하는 사람, 술이 깨지 않아 계속 정신이 없는 사람 등 천태만상이다.

숙취는 왜 생기는 걸까?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이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는데, 이 물질을 재빨리 해독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이 말썽쟁이 녀석이 우리 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불편함을 유발한다.

머릿속 혈관을 확장하여 두통을 일으키고,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메스꺼움과 구토를 일으킨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여 피로감이 심해지기도 한다.

숙취 해소에 왕도는 없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각 증상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음주 후 두통에는 삼두해정탕, 속쓰림에는 위를 보호해주고 위산을 중화시키는 짜 먹는 위장약 시럽, 매스틱 같은 제품들이 효과가 좋다. 울렁거리고 구토, 설사가 있다면 반하사심탕, 인진오령산 같은 한방 제제가 효과가 좋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가레오, 아티초크 같은 성분의

숙취의 증상은 사람마다 달라
각자에 맞는 숙취해소제 선택

제품이 좋다. 음주 후 피곤하고 어지럽다면 충분히 당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과일 쥬스나 포도당, 달달한 숙취해소음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

숙취해소제에는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식약처에서 이러한 기능성을 인증받은 원료는 밀크씨슬추출물, 헛개나무 과병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복분자추출분말, 브로콜리스프라우트분말,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등이 있다. 이러한 원료가 포함된 숙취해소제나 간 영양제는 음주로 지친 간의 보호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약과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숙취에 딱 맞는 제품을 고르기란 사실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숙취해소제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인체 적용시험이나 근거를 가지지 않아도 '숙취해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5년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제를 기능성식품으로 분류하여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제품에만 '숙취해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항상 접하던 제품들에서 갑자기 '숙취해소'라는 단어가 사라진 경우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제품들이 숙취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미처 아직 효능을 입증해야 할 시험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 없는 지지기반이 탄탄한 제품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숙취해소'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검증된 효능이 있다는 뜻도 될 것이다.

숙취는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이성과 같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이상형이 다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취향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것처럼 사람에 따라, 그 날 주종에 따라 숙취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몸의 상태에 따라 숙취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격렬한 술자리 다음날, 출근을 위해 힘겹게 몸을 일으켰을 때 자주 겪던 익숙한 불편함이 있다면 평소 잘 들었던 숙취해소제 조합을 기억하여 구매하는 것도 좋다. 이미 내 몸으로 수차례의 임상 시험을 거친 나만의 조합이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새로운 불편함이 있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 약국을 찾아가 불편한 증상에 대해 잘 이야기해보자.

혹시 또 아는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나의 이상형을 만나게 될지.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자녀 걱정 많던 하와이 부부에 부처님 법으로 고민 해결 완료

무척이나 더운 한여름이었다. 외국인 남녀 커플이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에 와서 입장료를 물어왔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하와이에서 온 부부라고 하였다. 한국은 처음이라 사찰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입장료는 없고 자유롭게 전각을 들어가도 좋다고 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안내소에 들어오라 했더니 흔쾌히 들어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다.

조계사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대부분은 불교 특히 한국불교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샤머니즘의 일종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또한 불교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 자의식이 강한 외국인은 반감을 표하거나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아도 불편한 내색을 냉랭함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왔다는 부부에게 몇 년 전에 다녀왔던 기억을 회상해가며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하고 맛난 과일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던 해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처음의 서먹함도 잠시 이내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이야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젊은 부인에게 "너무나 아름다워 영화배우인 줄 알았다"고 찬사도 보냈다. 부부는 경계심이 풀어졌는지 여러 대화를 하다가 근래 가족에서 일어나는 충돌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 부부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다고 했다. 여느 사춘기 학생들이 그렇듯이 부부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귀가하면 방에 들어가 식사 때나 간신히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 였다. 대화가 점점 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니 언성이 높아지고 급기야 부부싸움까지도 번지곤 했다.

그들의 고통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를 대비하여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한한 자비심을 강조했다.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여 그 원인이 '나'라는 생각 '내 것' 즉 '나와 나의 자녀'라는 집착과 그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욕망과 실망이 원인임을 냉철히 보도록 했다.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과 욕망을 버릴 때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자녀들을 온전히 이해해 주고 자애와 자비로 부모로써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미숙하여 자라고 있는 자녀에게 무한한 자비심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격려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본인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식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집착의 틀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가족에게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게 불교에 대해 즉 마음공부를 하면 지혜의 눈을 얻게 되고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였더니 감사해 하며 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

부부와 나는 뜨거운 허그(Hug)로 인사를 하였고 그들이 조계사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그들 가족과 아이들의 행복을 기원했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송마나의 **시절인연**

봄빛 가득한 들판

황구지천을 따라 늘어선 벚꽃 길을 걷는다. 벚나무들의 표피 속으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얼마나 봄빛을 기다렸을까. 머지않아 일제히 꽃을 터뜨릴 것이다. 키 큰 벚나무 아래로는 앉은뱅이 풀들이 푸른 융단을 펼치고 있다. 냉이가 납작하게 엎드려 실뿌리의 강인함으로 풋풋한 생명력을 뿜어낸다.

벚꽃 길이 끝나고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농부들이 논의 흙을 뒤엎었나 보다. 겨우 내 땅속에서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굳어있던 흙이 바깥세상으로 나왔다. 봄바람에 논흙이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벼를 수확할 때, 왜 벼 발목을 버려두는지 모르겠다. 흙 속에 묻혀 옴짝하지 못했던 발목 아래의 뿌리도 뒤엎은 흙을 따라 땅 위로 올라와 기지개를 편다. 누런 벼 뿌리대마다 푸릇푸릇 새싹이 올라오고 있다. 농부들은 머지않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새로운 모종으로 모내기를 할 것이다. 그럴 줄 알면서도 묵은 벼 뿌리는 봄빛이 비치면 어디든 상관 않고 푸른 잎을 키워낸다.

들판을 구불구불 흘러가는 하천에 무리지어 떠 있는 야생오리들을 바라본다. 물위에서 꼼짝하지 않는 모습이 그동안 축축했던 깃털을 말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개천 옆 둔덕에서 몸을 말릴 것이지 왜 물에 떠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을까. 물가에서 버들강아지가 한창 눈을 틔우느라 분주해서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봄볕이 오리의 깃털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흐르는 하천을 윤슬로 빛나게 한다. 그 물 위에서 반짝거리는 별꽃들 아래로 언뜻 오리의 붉은색 발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물 위로 둥둥 떠 있는 오리가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는 저렇게 쉼 없이 두 발로 헤엄치고 있을 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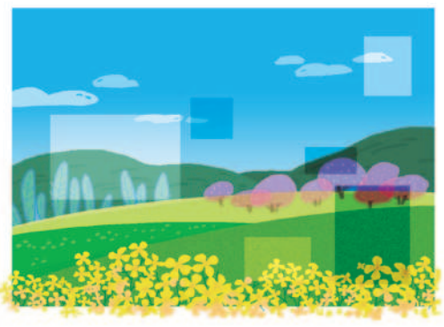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마를 간질이는 햇볕의 촉감이 부드럽다. 봄빛을 가득 품은 들판은 희망과 즐거움을 안겨준다. 들판을 껑충 뛰어가는 고라니에게 안녕하고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한다. 누런 갈대가 긴 잎을 서걱거리며 대신 화답한다. 겨울바람에 살점이 뜯겨 나갔어도 땅속에 완강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갈대는 목은 쉬었지만 제소리를 내고 있다. 설령 온몸이 풍화되어 흩어진다 해도 그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갈대들 사이로 이팝나무 가지들이 나뒹굴고 있다. 겨울에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떨어져 나갔다. 따뜻한 빛이 비치고, 새들이 지져대도 그들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머지않아 쌀알 같은 꽃을 피워 봄을 환하게 밝힐 이팝나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은 저렇게 생명을 잃는구나. 우리 인간도 불법(佛法)에서 벗어나면 저 메마른 이팝나무 가지와 다를 바 없으리라.

3월의 봄은 분주하다. 봄빛은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수선화의 구근을 밀어 올리고, 진달래와 개나리의 꽃눈을 틔우고, 여린 쑥에게 씁쓰레한 향을 불어 넣어 노인들의 입맛을 돋우게 하느라 한 눈 팔 겨를이 없다.

봄빛은 쉬지 않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빛을 받아야 꽃은 피어나고 송아지는 살이 오른다. 우리도 부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밀어 올려야 새사람이 될 것이다.

나, 봄빛 가득한 들판을 걸어간다.

〈작가〉

기자칼럼

강화엔 국립고려박물관이 필요하다

강화도를 한 마디로 규정하자면 '역사의 섬'이라고 해도 될 듯하다. 강화 8경 중 한 곳인 마니산에는 단군왕검이 천제를 올리던 곳인 '참성단'이 자리하고 있다. 민족의 영산이기에 매년 전국체전 성화가 이곳에서 채화된다.

고려·조선시대에는 수도 개경, 한성과 가까워 군사적 요충지였다. 고려 무신정권은 대몽항쟁의 중심지로 강화를 선택해 수도로 삼았고, 조선의 인조는 병자호란 당시 강화로 피신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다. 왜란·호란 이후에는 강화유수부로 지정, 한양의 외곽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 중 하나였다.

근현대와서도 병인박해를 이유로 프랑스가 병인양요를,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인해 미국이 신미양요를 강화도에서 일으켰다. 일본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근대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역사를 공부하면 한국 근현대사 절반은 알 수 있다는 농담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적으로 강화도는 중요한 곳이다. 전등사와 정수사 등 같은 고찰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 판각지로 알려진 선원사지도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화도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4월에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강화의 고려문화를 홍보하고 5월에는 국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피해 39년간 수도로 삼았던 고도(古都)이자 남한 지역 유일한 고려 역사 중심지이지만,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했기에 강화도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불교를 신봉했던 고려는 강화도 천도 당시 30여 개의 궁궐을 지었고, 선원사지에서는 팔만대장경을 판각했다고 전해진다. 판각지 논란이 있지만,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이 조성되고 관련 연구가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영상포교 30년

BTN불교TV는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청년포교를 위해
부처님 말씀과 대덕스님들의 귀한 법문을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앞서 뛰겠습니다.
아직 BTN 붓다회 회원이 아니시라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어
BTN불교TV를 응원해 주십시오.
BTN붓다회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신념과 정견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출가를 지향하는 불교라고 해도 현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불교의 출가자들은 세속적 가치보다 영원불변한 진리를 추구하며, 불교 신도 또한 현실에서 살아가나 열반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 그 영향으로 불교를 믿는 이들은 세상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견해 등에 기계적 중립을 지향한다.

20세기 후반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 우리 사회는 좌우 진영의 정치적 대결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전 시대까지는 국토분단과 민족 상쟁의 결과 반공을 앞세운 전체주의적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서 다른 의견이 분출될 수 없었으나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 등이 일어나면서 정치 진영 간의 대결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 정점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인한 갈등이 아닌가 한다. 논자는 양비론적 처방을 이야기하는 물리적 중도의 관점에서 필설을 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우리는 불교를 하는 사람이니 불교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을 뿐이다. 이와 유사한 언급이 경론이 적지 않으나 〈칼라마경〉의 서사가 눈에 띈다.

어느 때 붓다는 칼라마 인들이 사는 께사뿟따마을을 방문하였다. 칼라마 인들은 붓다께 이렇게 여쭙는다. "붓다시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이 께사뿟따에 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매도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도 이곳에 와서 각자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칭찬하며,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매도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붓다시여, 이런 존경하는 사문들 가운데서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정치적 신념 범람 시대
진정한 정견이 무엇인지 고민
구성원의 공익이 최우선 돼야

이에 붓다는 이렇게 답하신다. "칼라마 인들이여, 그대들의 의심은 당연하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라고 해서, 우리 성전에 씌어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또는 추론으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으로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그대들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런 법들은 지자(智者)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라."

자신만이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종교인이나 자신들만이 국민을 위한 최상의 정치이며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신념을 판별하는 기준을 붓다는 제시하고 있다. 그 신념이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마음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판별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만이 옳다는 신념은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대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정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초단절형 인간을 경계하라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세대 갈등은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실시한 미디어 조사 '세대에게 세대를 묻다'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 X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 등 모든 세대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세대 갈등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갈등이 단순한 세대 간 의견 차이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언론보도가 세대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언론의 세대 담론이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고 답하여,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언론이 세대 간 오해와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스티브 테일러 교수는 저서 〈불통, 독단, 야망(Disconnected)〉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그는 '연결형 인간'과 '단절형 인간'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연결형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단절형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안정 사회 '초단절형 인간' 출현
언론이 세대 갈등과 분절의 주범
연결된 다수 위해 언론이 역할해야

테일러 교수는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초단절형 인간(hyper disconnected person)'의 출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나 억압에 무관심하며,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테일러는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초단절형 인간의 카리스마에 매료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문제적 성격을 가진 리더에게 끌릴 수 있으며, 그들의 충동성을 결단력으로, 나르시시즘을 자신감으로, 무모함을 대담함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단절형 인간은 비현실적인 약속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며, 타인을 무자비하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윤리적 기준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다수'가 깨어나야 한다고 테일러 교수는 주장한다. 인류 사회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하나'로서 진화해 왔으며, 깨어 있는 의식을 통해 하나로 연결될 때 초단절형 인간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는 언론이 세대 통합보다는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 담론의 공론장에서 언론은 공감과 이타심으로 통합과 화합을 추구하는 초연결형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초단절형 존재로 머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언론과 언론인의 이타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 說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개관에 부쳐

한국은 유·무형 문화유산 중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지정문화유산 중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10월 불교중앙박물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공동주최한 '불교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 중 불교문화유산은 35%에 이르며, 중요도가 높은 국보와 보물의 경우에는 55%가 불교문화유산(주경 스님)"이라고 한다.

양과 질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문화유산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불교문화유산만을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연구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3월 6일 양평 용문산에 조계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개관한 것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24년 12월 준공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수장고를 비롯해 재질별 보존처리실, 전시실, 연구시설 등이 들어섰다. 특히 국내 최초로 대형불화를 조사 및 보존처리할 수 있는 대형불화처리실을 갖춘 점은 한국불교만의 유산인 괘불의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롭게 문을 연 보존센터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불교복지 선도할 로드맵이 필요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통한 자비실천에 앞장서 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3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계획이 공개됐다.

6월 11일에는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대법회 및 세미나'가 봉행된다.

연말에는 재단 30년 역사를 정리한 '30년사(史)'와 불교사회복지법인의 현황을 정리한 '불교사회복지편람' 발간된다.

불교사회복지단체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불교사회복지협의회 발족과 실무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불교사회복지 아카데미 창립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1995년 2월 25일 선대 선각자스님들의 원력과 대중들의 의지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창립돼 복지사업을 시작했다. 30년이 지난 청년이 된 지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단일법인으로는 전국 최대인 180여 개 시설을 9200여 명의 종사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만 200만명에 달하며 예산규모도 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30년 불교복지사업은 양적인 성장은 뚜렷하게 이뤘다. 이는 지역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성장해온 것이다. 이제 불교계가 눈을 돌릴 곳은 발굴되지 않은 복지계층이다.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사회가 미쳐 살피지 못한 이들을 발굴하고 도와야 한다. 그들에게 불교계 사회복지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살피는 관세음보살이 되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80차
중앙종회 소집 공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80차 중앙종회를 3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 서울 일붕선원에서 개최하오니 중앙종회 의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9년(2025) 3월 12일
일붕선교종 중앙종회의장 도정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취임식

대한불교삼론종은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천 천룡사에서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3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3월 1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지역	대전지역	전주지역	광주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강원지역
월요일 14시	화요일 14시	수요일 14시	목요일 14시	금요일 14시	토요일 14시	일요일 14시